

강 혜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약용 문학의 작가론적 교육 방안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 양 호

정약용 문학의 작가론적 교육 방안 연구

강 혜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 양 호

인 준 서

박양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2005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 명 석 교수지도

사학위청구논문

백석 서술시의 교수방법 연구

20 5년

성신여자대 육 원

국어 전공

은

논 문 개 요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을 비롯한 국어과의 수업들도 모두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문학 교육은 학습자의 감상이 아니라 교사의 지식 전달에 치중하여 이루어졌고, 특히 고전문학의 경우 내용이나 형식 요소의 암기를 중시하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고전문학을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학습자가 고전문학에 흥미를 갖고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창작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배경과 작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가의 삶과 가치관,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면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전문학의 많은 작가들 중에서도 개인적·사회적 삶의 모습을 여러 갈래의 작품 속에 표현한 다산 정약용을 작가론의 방향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보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부터 조선 후기 지식인으로서 백성을 걱정하고, 실학자로서의 의식을 드러내기까지 삶의 여러 모습을 시(詩)·편지글·묘지명(墓誌銘)·기(記) 등 다양한 형식의 글로 표현한 다산이라면 작가론적 교육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다산의 생애와 사회적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다산의 가정 생활과 교유관계, 유배기에 쓰여진 지식인으로서의 사회비판 의식과 애민 의식, 실학자로서의 의식이 잘 드러난 작품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다산과 관련된 모든 학습 내용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만들어 제시하였고, 활동 문항은 제시된 작품의 이해에서 나아가 창작 당시 다산의 생활 모습을 파악하고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하는 데까지 이

르도록 구성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이러한 활동들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다산의 문학 작품을 접하게 되는 수업 시간에 이용하거나 수행평가로 활용할 수 있다.

고전문학 수업이 학습자와 교사에게 모두 흥미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이 필요하다. 작가의 삶을 이해하여 친근함을 느끼게 되면 작품의 이해는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와 같이 실제로 문학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작가론적 교육 방안의 연구가 앞으로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정약용 문학 교육의 의의	4
1. 작가론적 문학 교육의 필요성	4
2. 정약용 문학의 교육적 가치 및 효과	7
III. 정약용 문학의 작가론적 교육 방안	10
1. 정약용 문학의 형성 배경 및 과정	11
2. 작가의식의 구현 양상	18
1) 개인 생활의 문학적 표현	19
① 가족과 가정 생활	20
② 우정과 풍류	33
2) 사회의식의 문학적 표현	47
① 사회비판 의식	48
② 애민의식	56
3) 실용의식의 표현	65
① 진보적 경제관	66
② 실천적 목민윤리	78
IV. 결론	90

참고 문헌

ABSTRACT

I. 서론

지금까지 고전문학과 그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문학의 갈래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작가의 문학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한 작가의 문학을 연구한다고 해도, 그 대상은 작가의 문학 전체가 아니라 시나 산문 등 하위갈래에 국한지어 행해졌다. 현대문학에서는 시인, 소설가, 수필가 등 작가가 한 분야의 활동만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작가의 작품 전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고전문학은 그렇지 않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볼 다산의 경우, 문학 내 갈래의 다양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경제·법률·교육·의학·건축기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따라서 작품 해석에서의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고전 작가의 연구가 현대 작가에 비해 쉽지 않을 것임은 당연하다.

본고에서는 다산 문학 전반을 대상으로 작가론적 교육의 가치와 실제 교육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이제까지 다산 문학 연구는 시 전체 혹은 인륜시, 사회시, 유배시 등 주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산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각 저서에 대한 연구물들이 있다. 기존의 연구방식과 다르게 다산의 문학 전체를 교육 대상으로 삼은 것과 작가 중심 문학 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는 II장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다.

다산의 문학은 가정에서 사회, 국가로 이어지는 다양한 층위의 배경 안에서 개인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 한 개인으로서 자녀의 교육을 염려하고, 가족을 걱정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아가 사회적 존재로서 당시 사회와 백성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여러 모습을 자신의 문학에 모두 표현해낸 작가는 흔하지 않다. 계

다가 고전문학의 경우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 그 속에서 현재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다산의 문학은 개별 작품의 교육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과 문학 세계를 연계하여 다양한 학생 활동을 구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고전문학 수업에서는, 작품의 내용을 음미하고 현재와 관련지어 보며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 작가의 심리를 헤아려보는 등의 학생 중심적 활동을 시행할 수가 없다. 미처 작품에 대한 느낌이나 감상을 가져보기도 전에 학생들은 문학적 갈래와 성격을 암기할 것을 먼저 강요당하고 따라서 고전문학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¹⁾

이와 관련하여 III장에서는 다산의 생애와 문인(文人)으로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활동을 먼저 제시한 후 작품 속 다산의 모습을 가족구성원, 친구간의 관계에서 본 구체적 일상의 모습과 사회 비판의식 및 애민의식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모습, 부국강병을 위한 실용적 주장을 펼친 실학자로서의 모습으로 크게 나누었다. 각 분류에 따라 구체적인 작품을 제시한 후 학생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수업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현행 수업과정에서는 고전 작품의 모든 작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 모든 작가의 전반적인 문학 세계를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제시하는 학습지의 활동 모형은 교사의 재량으로 수업 시간 중 또는 과제, 수행평가의 형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1) 정경희,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 석사논문, 2001, p.52~53.

고전문학 교육이 갖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고전문학 교육이 학습자의 해석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오히려 문학 작품에 대한 혐오감을 기르는 데 있다. 고전문학 교육에서 다루는 문학에 관한 설명은 작품에 사용된 평범한 낱말을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어로 바꾸어 무의미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고, 교사는 학습자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강요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느낌이나 감상이 배제되고 암기와 문제풀이만 있는 고전문학 학습은 고전문학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날 뿐더러,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접근 태도를 뿌리 채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갖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여 문학적 소양은 물론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성을 기르는 데까지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정약용 문학 교육의 의의

1. 작가론적 문학 교육의 필요성

다산 문학 교육의 가치를 알아보기 전에 이와 같이 작가론적 방법으로 고전문학의 교육 방안을 살피는 것이 왜 필요한가의 문제부터 짚어보려 한다. 고전문학 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물을 통해 확인되었다.²⁾ 고전(古典)이란 개념에는 단지 시간적으로 현대와 구별되는 과거라는 개념 외에 일정한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전승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훌륭한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문학이라는 인식의 공유이다. 따라서 고전문학은 근대 이전의 문학이라는 시대 구분에 따른 용어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정전(正典)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문학을 일컫는다.³⁾ 이러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고전문학 교육은 학습자의 문학적 소양은 물론 감성, 인성 발달까지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전문학 교육과 그 연구는 대부분 갈래론에 따른 것이었다.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특히 고전문학에서는 작품의 배경이나 작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⁴⁾ 그럼에도 현행 교

2) 권용덕, 「고전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0.

정경희,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 석사논문, 2001.

이수영,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과 교과서」, 신라대 석사논문, 2004.

최화순, 「현행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9.

3) 허왕욱, 『고전문학교육론』, 보고서, 2003, p.69~70 참조.

4) 우한용, 「문학교육에서 문화와 상상력」,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33

육에서는 작품의 갈래, 형식적 특징을 먼저 강조하거나 작가에 대한 언급이 있어도 작품의 창작 배경과 관련되는 정보는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⁵⁾ 고전 작품의 감상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고전문학 갈래와 형식을 접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중요시한 나머지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도 앞서우는 것은 바람직한 문학 교육이 아니다. 고전문학 교육의 목적은 문학 갈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의 수준이면 문학 일반에 대한 지식과 고전 작품에 대한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미 중학교에서 향가, 시조, 설(說) 등 다양한 갈래의 고전 작품들을 학습한 상태이므로 고전문학 자체를 생소하게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어려운 것으로만 여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본 이해 능력이 갖추어진 고등학생들의 작품 이해 및 감상의 폭을 넓혀 주고, 나아가 그것을 자신의 생활로 연장시켜 내면화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에서는 김은전, 「국어교육과 문학교육」, 『사대논고(師大論叢)』 제19집, 서울대사대, 1979, p.8~9를 인용하여 “문학이 인생을 제재로 함으로써 체험을 확대하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며, 또 문학은 상상력의 소산이기 때문에 창조성을 길러 줄 수 있고, 언어에 대한 감수성과 문학작품에 대한 애정을 기를 수 있다는 것 등이 문학교육의 의의로 지적되는 논지의 골자”라고 밝히며, 이들 가치는 문학이 인간 삶의 문제와 연관되는 데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5) 우한용, 앞의 책, p.201~202.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글을 쓴 사람이 대체로 밝혀져 있다. 그리고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문학교실에서는 글의 종류라든지, 작자소개의 효과 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거의 도식적으로 작자를 소개하고 있는 형편이다. 작자의 약력이나 업적 등을 판서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게 되었지만 학생들에게 과제로 부여하여 참고서를 이용하여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도식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장의 실정이다. 그보다 좀더 작자에 대해 유념하는 경우라도 대표작(代表作)을 알려준다든지, 교사가 알고 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도식적인 작자소개 방식과 함께 작자의 전기적(傳記的) 사실이 부정확하고 추상적이어서 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작품에 담긴 작가의 가치관과 생활상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상황에서 대상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작품의 구조분석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미가 이같이 작가의 삶과 연관지음으로써 보다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 또 작가의 삶과 가치관은 작품에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므로,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개별 작품의 감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단편적 작품의 이해가 아닌 해당 작가의 작품 경향과 생애를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형태의 문학 수업은 현재 대학의 전공 강의가 아니면 접하기 어렵다. 그 이전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만을 학습하고 지나갈 뿐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작품을 접하면 작가가 누구인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작가 소개는 작가 소개대로 이루어지고, 작품은 작가와 관계없이 구조가 분석됨으로써 작가와 작품은 양편에서 서로를 외톨려 놓는 결과에 이른 것이 우리 문학교실의 실상인 것이다.⁶⁾

이렇게 지금까지 작가론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고전문학에 배정된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과 문학 연구 자체가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여건이지만 보다 높은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하여 작가의 생애에서 주요 부면이 드러나는 몇몇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와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교과서에는 단 한 편의 작품만이 실려있다 해도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 작가의 생애, 문학 전반을 연결하는 작가론적 교육 방식을 활용하면 개별 작품의 분석이 아니라 작가와 작품의 총체적 이해가 가능할 것

6) 우한용, 앞의 책, p.204.

이다.

2. 정약용 문학의 교육적 가치 및 효과

다산이 살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는 이조 봉건사회의 해체기로서 봉건적 병폐가 누적되어 그 말기적 현상들이 도처에 드러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개인적으로는 신유사옥(辛酉邪獄)과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인한 18년의 유배기를 경험하면서 그는 일상의 여러 모습을 작품에 표현해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 다산은 방대한 저서를 남겼으며, 사회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던 실학자의 모습으로만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식인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현실 인식 및 사회 비판 의식이 다산의 주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이밖에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을 개성있게 표현한 작품도 많다. 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는 당시로서는 보기 어려운 남편의 모습, 떨어져 지내는 자식들의 교육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모습,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형수님을 추억하는 모습 등 다산의 개인적인 면이 많은 작품에 드러나 있다. 또 익히 알려진대로 실학자로서의 모습 역시 많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작가가 개인, 사회, 국가의 층위를 오가며 각 범위에서 개성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예는 흔치 않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접하게 되는 고전 작가들 중 사회적 굴곡의 경험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개인으로서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면서 실학자로서의 의식도 함께 보여주는 다산과 같은 이는 찾기 힘들다. 다산의 경우 전생애에 걸쳐 남긴 많은 양의 작품들

중에서 특징적 시기의 작품들을 작가론적으로 살펴본다면, 학습이 끝난 후에는 그의 삶과 의식, 당시 사회상 및 거기서 파생된 문학적 특징을 총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다산은 이런 다양한 층위의 개성 있는 모습들을 시를 비롯하여 편지, 묘지명, 기 등 여러 갈래의 글로 남겼다. 따라서 한 작가에 대한 학습이 그의 전체 생애와 당시 사회는 물론이고 고전문학 갈래를 두루 접하게 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니 작가론적 교육의 가치는 충분하다 여겨진다.

물론 작가와 작품을 관련지어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다산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서 본문에 실려있거나 보충 자료로 제시되는 작품까지 총 다섯 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18종 교과서 중 어느 것을 채택했느냐에 따라 학습 기회가 결정되므로 사실상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작품 뿐이라 할 수 있다.

<국어>(상)⁷⁾

수록 작품	학년	대단원 및 단원 학습목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10학년	5. 능동적인 의사 소통 - 읽기와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이해한다. - 글을 매개로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가 시대를 초월하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작가, 독자,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학 작품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7) 교육인적자원부,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 2002, p.223.

<문학>

수록 작품	출판사	주제
고시(古詩) 8	두산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서러움
탐진촌요(耽津村謠)	중앙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힘겨운 삶과 관리들의 횡포 고발
보리타작 [打麥行]	디딤돌, 지학, (주)지학, 케이스, 한교, 형설	농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깨달음
수오제기(守吾齋記)	블랙박스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채택 교과서에 따라 좌우되는 「문학」 수업은 제외하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할당된 두 시간의 수업으로 다산의 방대한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주어진 작품을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산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이 작품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를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작품들, 더 나아가서는 다산의 색다른 모습을 알 수 있는 작품들도 함께 살펴본다면 보다 깊이 있는 감상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내면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실제 수업에서 행하는 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교사가 재량에 따라 수업 시간 중에 활용할 것과 과제로 제시할 것을 미리 계획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Ⅲ. 정약용 문학의 작가론적 교육 방안

현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다산의 작품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국어(상)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와 18종 문학 교과서의 <고시> <보리타작> <수오재기> <탐진촌요>이다. 이것만으로는 작품에 표현된 다산의 여러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전히 학생들은 다산이 그저 백성들의 사는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유배를 당한 적 있는 실학자였다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학 작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 다산의 생애와 문인(文人)으로서의 면모를 알 수 있는 학습 활동을 먼저 제시할 것이다.

작품 속 다산의 여러 모습을 알고 그 현재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학습 작품의 선정도 다산의 여러 층위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배경과 창작 배경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다산 문학의 형성 과정 및 배경을 알아보는 활동을 먼저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인간미가 느껴지는 평범한 개인 다산의 모습이 표현된 작품, 사회 비판 의식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이 표현된 작품의 교육 방안을 차례로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실용의식이 표현된 작품의 교육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학습지는 작가론적 문학 연구라는 본고의 방향에 맞추어 학생들이 작품 학습 시 다산의 생애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다산의 삶과 문학 작품을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생활에까지 접목해보는 등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 작성하는 시간이 되게 한다. 예문으로는 시(詩)·기(記)·묘지명(墓地銘)·편지 등을 가능한 고루 활용하며, 학생

들의 활동은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배당된 수업 시간에 또는 과제·수행 평가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 활동을 통해 다산의 다양한 장르에 걸친 개성 있는 모습을 이해하고, 그의 전 생애를 파악하는 것이 본 장의 방향이자 본고의 연구 목표이다.

1. 정약용 문학의 형성 배경 및 과정

다산의 문학을 작가론적 관점에서 학습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 목적임을 생각할 때, 작품을 대하기에 앞서 그의 생애와 당시 사회를 알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에서 다산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될 뿐이다.

· 정약용(1762~1836) : 조선 시대의 문신, 실학자. 호는 다산(茶山). 정치 기구의 개혁과 지방 행정의 쇄신, 농민을 위한 토지제의 개혁, 노비제의 폐지 등을 주장. 유형원(柳馨遠)과 이익(李瀼)의 사상을 계승하여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이 있다.⁸⁾

다산의 작품 학습에 배정된 수업을 진행하기 전, 차시 학습으로 그의 작품을 예고하며 그러한 문학의 형성 배경 및 과정을 알아보는 학습 활동을 과제로 부여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까지 스스로 조사하여 알아온 다산의 생애를 교사가 정리해준 후에는 작품 학습에 들

8)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상)』, 2002, p.196.

어갈 수 있다.

다산의 생애는 유년 시절을 제외하면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30대 관료 시절, 신유사옥 이후 유배기, 해배(解配) 이후가 그것이다. 작가로서 그의 작품 경향도 이러한 시기 구분과 연결되어 변화를 보인다. 관직에 있던 득의(得意)의 시절, 그의 문학은 내용이나 형식 모두 낭만적이고 자신에 차 있었다. 반면 유배 이후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가까이서 지켜보게 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작품에 담았고, 해배 이후 만년(晩年)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유배지에서 시작한 저술 작업을 계속했다.

본 절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산의 작품을 학습하기 전 예비학습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작품과 다산을 함께 이해하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문학의 형성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생애와 당시 사회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대로 다산의 작품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수행평가 과제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생들이 여러 자료를 참고로 학습지를 작성하여 수업 시간에 임했을 때,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공자나 알고있을 법한 상세한 내용까지 언급하지 않되 학생들이 찾아온 내용은 최대한 활용하여 정리한다면, 자신의 자료에 대한 점검과 내용 이해에 도움이 얻게 될 것이다.

◇ 개별학습지

*** 정약몽의 생애를 스스로 찾아봅시다. 인터넷, 사전, 책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세요.**

<점검하기>

1. 정약룡이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그의 저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어 봅시다.

<알아보기>

1. 정약룡은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으며, 가족 관계는 어떠했는지 알아봅시다.

2. 결혼 후 정약룡의 가족 관계를 알아보고, 그들에 대한 정약룡의 태도나 마음 씀씀이가 어떠했는지 알아봅시다.

3. 가정 생활과 관련하여 정약룡은 주로 어떤 내용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했는지 찾아봅시다.

4. 정약룡은 언제, 어떤 관직을 지냈으며, 관료로서 임금·다른 관료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알아봅시다.

5. 정약룡의 교우(交友) 관계를 알아보고,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친분을 맺었는지 조사해 봅시다.

6. 관직에 있던 시절, 정약룡은 어떤 내용의 작품들을 썼는지 찾아봅시다.

7. 어떤 사건으로 정약룡이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또 어디로 유배되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8. 유배지에서 정약룡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행했는지 알아봅시다.

9. 유배되어 있는 동안 정약룡은 주로 어떤 작품들을 썼는지 찾아봅시다.

10. 실학자로서 정약룡은 어떤 주장들을 펼쳤는지 알아봅시다. 또 언제,

어떤 저서들을 남겼는지도 함께 조사해 봅시다.

학생들은 <점검하기>를 통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또 기존 지식을 점검한 후 자료 찾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의 효과 또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므로 꼭 실시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인터넷 또는 백과사전이나 각종 서적을 참고하여 자료를 찾게 될 것이다. 자신이 자료를 올바른 경로로, 적절한 내용의 것을 찾아왔는지 알기 위해서 출처를 꼭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자료와 비교하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자료 스크랩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알아보기>는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산의 생애와 문인(文人)으로서의 면모를 흐름에 맞게 배열하였는데, 1~3은 어린 시절 및 가정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는 활동이고, 4~6은 관료 생활 및 교우관계를, 7~9는 유배 생활, 마지막 10은 문인이 아닌 실학자로서의 모습과 만년의 저술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열 개의 문항에 차례로 답을 찾아적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산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의 문학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그려낼 수 있게 된다.

학생 개개인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들까지 자세히 알 수 있게 하려면 학급의 전체 학생들 몇 개 조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각 조는 다산 생애의 특정 시기만을 맡아서 가능한 상세히 조사해오고, 이렇게 정리된 각 부분은 작품의 본시 학습이 전개되기 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학생들이 다산 생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전체 학생들 네 개의 조로 나누면, 첫 번째 집단의 학생들은 1~3 문항을 바

탕으로 다산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의 모습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각 집단을 위한 구체적인 문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조별 학습지

<1조>

*** 정약봉의 생애를 스스로 찾아봅시다. 인터넷, 사전, 책 등의 자료를 이용하되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세요.**

<점검하기>

1. 정약봉이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그의 저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어 봅시다.

<알아보기>

1. 정약봉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가족 관계는 어땠는지 알아봅시다.
2. 어린 시절 정약봉은 어떠했는지, 성격 또는 학문에서의 성과 등을 조사해 봅시다.
3. 결혼 후 정약봉의 가족 관계를 알아보고, 가정 생활은 어떠했는지 찾아봅시다.
4. 정약봉의 생활 형편은 어땠는지 알아봅시다.
5. 가족과 가정 생활에 대한 문학 작품등을 찾아봅시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을 대하는 정약봉의 마음이 어떤지도 알아봅시다.

<2조>

*** 정약봉의 생애를 스스로 찾아봅시다. 인터넷, 사전, 책 등의 자료를 이용하되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세요.**

<점검하기>

1. 정약봉이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그의 저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어 봅시다.

<알아보기>

1. 정약봉이 처음 관료가 된 것은 언제이며,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알아봅시다.

2. 당시 인금은 누구였으며, 임금과 정약봉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알아봅시다.

3. 젊은 시절 정약봉이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친분을 나누었는지 조사해 봅시다.

4. 관료 시절에 쓴 작품등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3조>

*** 정약봉의 생애를 스스로 찾아봅시다. 인터넷, 사전, 책 등의 자료를 이용하되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세요.**

<점검하기>

1. 정약봉이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그의 저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어 봅시다.

<알아보기>

1. 정약봉은 언제, 무슨 일을 유배되었는지 알아봅시다.
2. 정약봉 어느 곳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배되었는지 알아봅시다.
3.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조사해 봅시다.
4. 정약봉이 유배지에서 쓴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5. 유배된 동안 정약봉은 가족과 어떻게 소식을 전하며 지냈는지 알아봅시다.

<4조>

*** 정약봉의 생애를 스스로 찾아봅시다. 인터넷, 사전, 책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세요.**

<전건하기>

1. 정약봉이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그의 저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어 봅시다.

<알아보기>

1. 정약봉의 대표적인 저서들을 찾아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도 간략하게 찾아봅시다.
2. 정약봉의 저서들은 주로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 알아봅시다.
3. 실학자로서 정약봉은 어떤 주장들을 내세웠는지, 앞에서 다룬 저서의 내

용을 참고하여 알아봅시다.

4. 정약용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일을 찾아봅시다.

5. 정약용이 언제, 어디서 숨을 거두었는지 알아봅시다.

‘조별 학습지’는 ‘개별 학습지’의 문항을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한 것일 뿐,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배경 지식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점검하기’의 내용은 각 조의 학습지에 동일하게 실렸으며, 문항의 내용이 시기별로 나뉘어 차이가 있다. ‘개별 학습지’나 ‘조별 학습지’ 둘 중 어느 것을 이용하더라도, 활동 후에는 다산 생애의 흐름과 그 흐름에 따른 문인으로서의 모습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학습 효과는 동일하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다산 문학의 교육은 여기서 습득한 배경 지식을 실제 문학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작가의식의 구현 양상

다산 생애의 흐름과 문인으로서의 모습을 학생들 스스로 알아보는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작품 학습은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소항목을 문학 작품의 특성상 주제별로 구분하였는데, 가정 생활과 우정 및 풍류의 세계, 사회 지식인으로서의 의식, 실학자로서의 의식을 드러낸 작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작품의 주제에 따라 항목을 나눈 것은 앞서 살펴본 다산의 생애 및 문학 형성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각 소항목은 차례에 따라 그 시기를 성장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져 관료 생활을 하던 시절과 유배되었던 시기 그리고 유배기에서 말년까지의 시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관료 생활 중에는 풍류만을 읊었다거나 유배지에서는 사회 의식을 표현한 작품만을 쓴 것은 아니므로 생애 구분과 같이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다산의 생애와 작품의 흐름이 대체로 비슷하고, 이미 생애에 대한 학습을 마친 상태에서 작가론의 방향에 따라 작품 학습을 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문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로 교육 방안을 제시 하겠다.

1) 개인 생활의 문학적 표현

문학은 사람의 삶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나⁹⁾ 수용·이해하는 독자 모두 작품을 자신의 삶과 완전히 무관하게 대할 수 없다. 이 점은 작가 다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산의 문학 속에는 일상 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이 배어있다. 그는 <보리 타작>에서 건강한 생활 속 모습을 긍정적인 것처럼 일상적인 것 자체를 선과 미의 척도로 여겼기 때문에, 윤리적인 선을 실현하는 장도 인간의 일상세계라고 생각했다. 즉 그가 작품 속에 다양한 일상을 수용한 것은, 일상세계 내

9) 우한용, 앞의 책, p.211 참고.

서정 장르의 기본 속성이 주관성에 있다는 점에서 시와 시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한 논지이다. 나아가서 우리가 허구의 양식으로 인정하는 소설의 경우도 작가의 삶과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리온 에델(Lion Edel)은 그의 저서 『The Psychological Novel』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소설도 그 작가의 자서전은 아닐지라도 역시 그 작가에 의해 이룩된 그의 독특한 총합이며 결코 타인의 것이 아니다. 즉 아무리 작가가 작품과 자신을 분리시켜도 작품 속에 주입시킨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작품 속에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만은 작품 속에서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에서의 가치실현을 위한 바탕이 되는 것이었다. 또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사회·국가로 일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구체적 결과로 목적의식을 지닌 사회적 성격의 문학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뒤에서 살펴볼 사회의식이 표현된 작품들과 여기서 다룬 작품들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층위를 불문하고 생활 주변의 ‘일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산 문학의 일관된 흐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① 가족과 가정 생활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실학자이기 이전에 다산도 가족의 일원이었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어느 평범한 가장의 모습과 다름없고, 어린 시절 어머니 없는 자신을 정성껏 보살펴준 큰 형수를 추억하는 모습 역시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산의 이러한 인간적이고, 정감 있는 모습이 담긴 작품들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 정약봉의 부부 생활을 진작할 수 있는 두 편의 글입니다. 잘 읽고, 묵음에 대해 봅시다.

㉔ 낡은 활옷에 씌 [題霞帔帖]

내가 강진에서 귀양살고 있을 때 병든 아내가 낡은 치마 다섯 폭을 부쳐왔다. 그녀가 시집오던 날 입었던 붉은 색 활옷이었다. 붉은 색은 이미 씻겨나가고 노란 색도 희미해져서 책 장정으로 삼기에 적당했다. 그래 가위로 말라서 작은 공책을 만들어 놓고 손가는 대로 훈계하는 말을 적어서 두 아들에게 남겨준다. 아마도 훗날 이 글을 보게 되면 감회가 일어날 것이고, 두 아버지의 아름다운 은택(恩澤)을 어루만지게 되면 뭉클하고

감동이 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름을 하피첩(霞帔帖)이라 했으니 이것은 붉은 치마를 돌려 은근히 말한 것이다.

가경(嘉慶) 경오년(1810) 초가을(7월)에 다산의 동암(東菴)에서 쓰다.¹⁰⁾

㉞ 회혼시 [回婚詩]

육십 년 세월, 눈 깜박할 사이 날아갔으니
복사꽃 무성한 봄빛은 신혼 때 같구려
살아 이별, 죽어 이별에 사람이 늙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에 감사하오
이 밤 목란사 노래 소리 유난히도 좋으니
옛날에 하피첩은 먹 흔적이 아직 남았소
나뉘었다 다시 합함은 참으로 우리의 모습
한 쌍의 표주박을 남겨 자손에게 주노라

六十風輪轉眼翻	穠桃春色似新婚
生離死別催人老	戚短歡長感主恩
此夜蘭詞聲更好	舊時霞帔墨猶痕
剖而復合眞吾象	留取雙瓢付子孫 ¹¹⁾

조선 시대에 유가(儒家)의 선비가 아내에 대한 일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거나 정을 표현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그런 시대에 다산은 참다운 마음의 정을 토로함으로써 자신이 지니고 있던 인간 본성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이

10) 박무영, 『뜯 세상의 아름다움』, 태학사, 2001, p.128.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이하 다산의 모든 작품 인용에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余在康津謫中 病妻寄敝裙五幅 盖其嫁時之纁袖 紅已浣而黃亦淡 政中書本 遂剪裁爲小帖 遂手作戒語 以遺二子 庶幾異日覽書興懷 挹二親之芳澤 不能不油然而感發也 名之曰霞帔帖 是乃紅裙之轉讎也 嘉慶庚午首秋 書于茶山東菴

11) 박무영, 앞의 책, p.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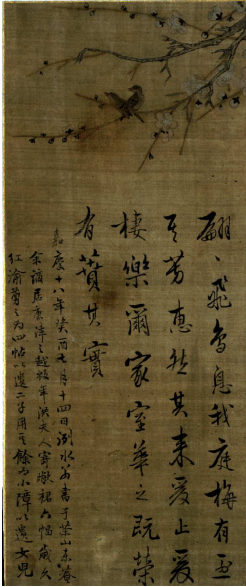
것은 다산이 경세가이기 이전에 순수하고 인간미를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¹²⁾

15세에 한 살 연상인 풍산 홍씨(1761~1838)와 결혼한 다산은 공교롭게도 결혼 60주년이 되는 회혼일에 먼저 눈을 감고 홍씨는 이년 후인 1838년에 남편 다산을 뒤따른다. 10대 중반의 철없던 나이에 결혼하여 힘든 과거 공부와 분주한 벼슬살이로 인해 부부간의 애틋한 정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한 다산은 정치적 반대파의 모함으로 인해 한창 나이인 사십에 유배를 떠나며 사랑하는 아내와 눈물의 생이별을 하게 된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유배지에 떨어져 살았으나 그는 한결같이 성실한 남편의 모습을 보인다.

1. <낡은 활뿔에 씌>과 <회혼시> 두 극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대해 봅시다.
2. ㉠에서, 혼례 때 입은 치마를 유배지로 보낸 아내의 마음과 그것을 받아든 정약용의 심정이 어땠는지 짐작해 봅시다.
3. ㉡는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혼일에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시입니다. 정약용 부부의 관계가 어땠는지 당시 사회의 분위기도 고려하며 생각해 봅시다.
4. 이혼율이 날로 증가하는 현대에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아늑하게 늙어가는 부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혹은 매체에서 그런 부부를 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말해 봅시다.
5. 자신의 결혼 생활을 그려봅시다. 배우자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또 자신이 바라는데로 60년을 함께 지낸 후 회혼일에는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12) 최병정, 「다산 정약용의 서정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1, p. 29 참조.

* 정약봉은 하피첩에 쓰이고 남은 치마감에 매한타 새를 그려 시집 간 딸에게 그림가리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화병제도(梅花屏題圖)>라는 제목의 이 그림에는 딸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바라는 글도 적혀있으니 정약봉 부부의 깊은 정과 자식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매화병제도>(1813, 고려대학교 소장)

㉠와 ㉡는 다산 부부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두 글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소재는 ‘하피첩’인데, 아내의 치마로 만든 이것은 다산 부부의 사랑과 그리움을 담고 있다.

다산이 유배되고 몇 년 후, 시집을 때 입었던 빛바랜 치마를 그에게 보낸 아내의 마음이나 그것을 받아들고 잘 마름질하여 공책을 만든 후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교훈을 적어내려간 다산의 마음 모두 아름답다. 당시는 아내가 귀양간 남편을 보러 자유롭게 다닐 수 없던 시절이고, 유배를 당한 경우 현

지에서 소식을 들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럼에도 다산 부부의 진실한 정은 오히려 더욱 애뜻하게 드러나니, 잠깐의 헤어짐도 견디기 어려워하고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요즘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따라서 작품 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미래 결혼 생활까지 연결지어 생각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피첩’과 관련된 다산의 그림 <매화병제도>를 함께 소개하여 마찬가지로 다산 부부의 진실한 사랑이 작품의 바탕을 이룬다는 점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표현되어 있음을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 정약룡이 아들에게 보낸 아래의 편지글을 잘 읽고, 묶음에 대해 봅시다.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 아이들에게 [寄二兒]

㉠

오늘날, 세상을 쥐고 흔드는 훌륭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벼슬자리와 문호를 이어받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너는 지금 폐족이다. 만약 폐족의 처지에 잘 대처해서 처음보다 더욱 완전하고 좋게 된다면 또한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하면 폐족의 처지에 잘 대처하는 것이겠느냐? 오직 한 가지 독서뿐이다. 독서는 세상에서 최고로 깨끗한 일이다. 비단옷 입은 권세가 자제들은 그 맛을 알 수가 없고, 궁벽한 시골의 수재들도 그 깊은 경지는 알 수가 없다. 반드시 벼슬하는 집의 자제로서 어려서 듣고 본 바가 있고 중년에 화를 만난 너희 같은 자들만이 비로소 참다운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이 책을 읽을 줄 모른다는 말이 아니다. 한갓 글자만 읽어서는 독서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략)

이제 학유 네가 이미 과거를 볼 수 없게 되었으니 과거에 소용되는 문장을 익혀야 하는 걱정은 사라진 셈이다. 나는 네가 이미 진사가 되었고 이미 급제도 하였다고 여긴다. 글자를 알지만 과거를 보아야 하는 폐단이 없는 것과 진사 급제하는 것과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네가 참으로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것이다. 내가 앞에서 말한 ‘폐족의 처지에 잘 대처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㉔

나는 천지간에 홀로 서서 오직 저술하는 일에만 생명을 의지하고 있다. 혹 한 구절이나 한 편, 마음에 드는 글을 얻으면 나 혼자 읊조리고 나 혼자 감상할 뿐이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만은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뜻은 이미 문자와는 멀어져서 문자를, 관계가 끝나면 버리고 마는 관처럼 무용지물로 여기는구나. 점점 몇 년이 지나면 너희들도 나이가 들어 뼈마디도 굽어지고 수염이 자라서 얼굴을 대하면 미워질 텐데, 오히려 아버지의 글을 읽으려 하겠느냐? 나는 조괄(趙括)이 비록 미련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지은 병서를 잘 읽었으니 훌륭한 자제라고 말한다. 만일 너희들이 독서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 저술은 쓸 데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내 저술이 쓸 데 없는 것이 된다면 나는 할 일이 없게 되어 장차 마음의 불을 끄고 진흙으로 빛은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열흘이 못 가 병이 날 것이고 병이 나면 어떤 약으로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라.

내가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다. 잘 되는 집안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저절로 존중을 받는다. 그러나 폐족이 무식하면 더욱 가증스럽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천시하고 세상이 비루하게 여기는 것도 슬픈 일인데, 지금 너희들은 게다가 스스로 천해지고 스스로 비루해지니 이것은 슬픈 처지를 스스로 만드는 것일 따름이다.

너희들이 끝내 배우지 않고 자포자기해 버린다면, 내가 저술하고 가려

뽑아놓은 것들을 장차 누가 수습하여 편차를 정하고 남길 것과 뽑을 것을 정하여 책으로 편찬할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 책은 끝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책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후세의 사람들은 오로지 사헌부에서 올린 보고와 심문 기록으로만 나를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여기까지 생각해서 분발하여 학문에 힘써라. 그리하여 내 가느다란 학문의 맥이 너희들에게 이르러서는 더욱 커지고 왕성해지게 하여라. 그렇게 된다면 여러 대에 걸친 고관대작이라도 이 맑은 복과 바꿀 수는 없으리라. 어찌 괴로이 이것을 버리고 도모하지 않느냐?¹³⁾

* 조괄(趙括) - 전국시대 조나라의 명장(名將) 조사의 아들로, 아버지가 전하는 방법의 이론에만 밝을 뿐 실제 전투를 지휘할 수는 없었다.

* 병서 - 병법(兵法) 즉 군사작전의 방법을 적은 책.

이 편지는 1802년 강진에 유배된 초기에 부쳐진 편지다. 다산 형제가 재차 유배됨으로써 가문이 완전한 폐족이 되었음을 거듭 확인해야 했던 시점일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산은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 절망하고 있을 아들들에게 자포자기하지 말도록 간절히 타이르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고향에 남아있는 자식들의 교육을 소홀히하지 않았다. 과제를 내어주고 검사하고, 데려다 가르치고 다시 물어보고 하면서, 아들들이 현실적인 입신출세의 길을 원천봉쇄 당한 폐족의 처지에도 희망을 가지며, 학문을 계속하도록 독려했다. 이런 모든 교육은 편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때로는 준엄하게 질책하고 때로는 너희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고까지 하며 ‘애걸’한다.

유배지에서의 편지들은 아버지 없이 살아야 하는 10대 후반의 아들들에 대한 가정교육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업에 대한 태도, 선비로서의 품

13) 박무영, 앞의 책, p.168~173.

위를 유지하는 법, 술 마시는 버릇, 일상의 몸가짐, 일가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의논하고 가르치고 타이른다.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서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땅 끝에 홀로 떨어져 나와 피를 토하듯이 쓰는 이 고심참담한 편지를 너희가 차마 외면할 수야 있겠느냐고까지 한다. 자식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엄격한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동시에 배어 나오는 감동적인 편지들이다.¹⁴⁾

1. 편지 내용에 드러난 정약봉의 처지를 찾아서 짚어 보시오.
2. 정약봉은 편지에서 아들에게 어떤 것들을 당부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시오.
3. 정약봉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해당 구절을 찾아가며 이야기해 보시오.
4.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딸들한테 자녀 교육을 하시는지 자신과 주변의 경우를 떠올려 짚어 보시오.

다산의 편지를 읽은 후에는 가장 먼저 학생들이 편지 내용에 드러나 있는 그의 처지,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들과 떨어져 지내며 폐족의 신세가 되었지만 저술에 힘을 쏟고있는 다산의 상황과 그런 자신의 글을 후세에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족이라 욕듣지 않으려면 책을 읽는 데 힘을 쓰라는 그의 당부를 잘 파악하도록 한다. 또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쓰며 다산은 아들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려는 안간힘과 사랑 등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라 추측

14) 박무영, 앞의 책, p.175~176 참조.

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작품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과 주변 생활을 떠올려보며 오늘날의 자녀 교육과 비교해보도록 지도한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건 ‘유배’라는 과거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다른 어떠한 의사 전달 수단도 없던 당시에는 편지 한 통이 오가는 데만도 엄청난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은 유배되고, 폐족으로 전락하여 과거의 길이 막혀버린 두 아들에게 다산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을 것이고,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 깊이 새겼을 것이다.

가족들이 제각기 자신의 생활에 쫓겨 마주앉아 대화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요즘 가정에서도 부모들은 다산과 같이 교육 문제와 관련한 당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산이 살았던 조선 시대나 오늘날이나 같다는 데 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떤 말들을 듣는지, 친구들의 경우와 비교해보며 이러한 점들을 찾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음은 정약룡이 쓴 큰 형수의 묘지명입니다. 잘 읽고, 문음에 대해 봅시다.

큰 형수님의 추억 [丘嫂恭人李氏墓誌銘]

약룡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연천현(漣川縣)으로 간 적이 있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술 담그고 장 담그는 살림 여가에 형수와 저포(樗蒲)놀이를 하여 ‘3이야’, ‘6이야’ 하며 그 즐거움이 굉장하였다.

몇 년 뒤에 어머니가 세상을 등지셨는데, 약용이 그때 겨우 9세였다. 머리에 이와 서캐가 득실거리고 얼굴에는 때가 더덕더덕하였는데, 큰형수가 날마다 힘들여 씻기고 빗질하였다. 그러나 약용은 또한 흔들며 벗어나고 형수에게로 가려하지 않았다. 형수는 빗과 세수 대야를 들고 따라와서 어루만지며 씻으라고 사정하였다. 달아나면 잡기도 하고 울면 조롱도 하였다. 꾸짖고 놀려대는 소리가 뒤섞여 떠들썩하니 그 일로 온 집안이 한바탕 웃곤 했는데 모두들 약용을 밭살스럽게 여겼다.

만형수는 모습과 성품이 현결차서 우뚝하기가 마치 장부와 같고, 녹록(碌碌)하게 자잘한 일은 하지 않았다.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또한 관직에서 물러나 집에 계시니 생활은 더욱 곤궁해졌다. 그러다보니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고 하는 비용을 마련한 길이 없었다. 큰형수가 혼자서 이것들을 다 감당하셨는데, 팔찌와 비녀 등의 패물은 모두 팔아 쓰고, 심지어는 숨을 두지 않은 바지로 겨울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제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끼니를 이어나갈 만한데 형수가 미처 누리지 못하니, 슬픈 일이다.

(중략)

형수는 겨우 15세에 우리 큰형님께 시집오셨다. 경자년(1780)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따라 예천군에 가셨다가 돌립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니 4월 15일이다. 충주 하담(荷潭) 선영의 동남쪽 언덕에 장사지내니, 이는 우리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묘역(墓域)이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시어머니 섬기기도 쉽지 않거니
시어머니가 계모면 더욱 어렵네
시아버지 섬기기도 쉽지 않은데
시아버지가 홀아비면 더욱 어렵네
시동생 대우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머니 잃은 시동생이면 더욱 어렵네
어려운 일인데도 잘 하셔서 유감이 없으셨으니
이것은 큰형수의 너그러움이었네¹⁵⁾

* 저포놀이 -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소멸되어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윷과 비슷한 놀이로 전해진다.
* 서캐 - 이의 알.

다산의 어머니가 죽고, 그를 돌본 것은 큰 형 정약현의 첫째부인이자 천주교로 유명했던 이벽의 누이 이씨였다. 형수가 씻겨주지 않으면 평소 장난이 심했던 다산은 늘 지저분한 상태였고, 후에 천연두에 걸렸을 때도 새어머니와 함께 형수가 그를 정성껏 간호했다.

다산의 집안이 천주교 때문에 화란을 당한 것이 큰형수와 무관하지 않음에도,¹⁶⁾ 그는 형수의 아름다운 인품과 훌륭한 여인의 덕을 빠짐없이 기록해 어린 개구쟁이를 보살피준 공에 확실한 보답을 했다.

1. <큰 형수님의 추억>을 읽고, 정약용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래에 제시된 <서모(庶母) 김씨에 대한 추억> 부분도 참고하세요.

처음 우리 집으로 시집올 때 약용의 나이가 겨우 12살이었다. 머리에 서캐와 이가 많고 또 부스럼이 잘 났다. 서모는 손수 빗질을 해주고 또 그 고름과 피를 씻어 주었다. 또 바지와 적삼과 버선을 빨래하고 꿰매며 바느질하는 수고도 또한 서모가 담당하다가 장가를 든 뒤에야 그만두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중에서 특히 나와 정이 두터웠다.

15) 박무영 옮김, 앞의 책, p.132~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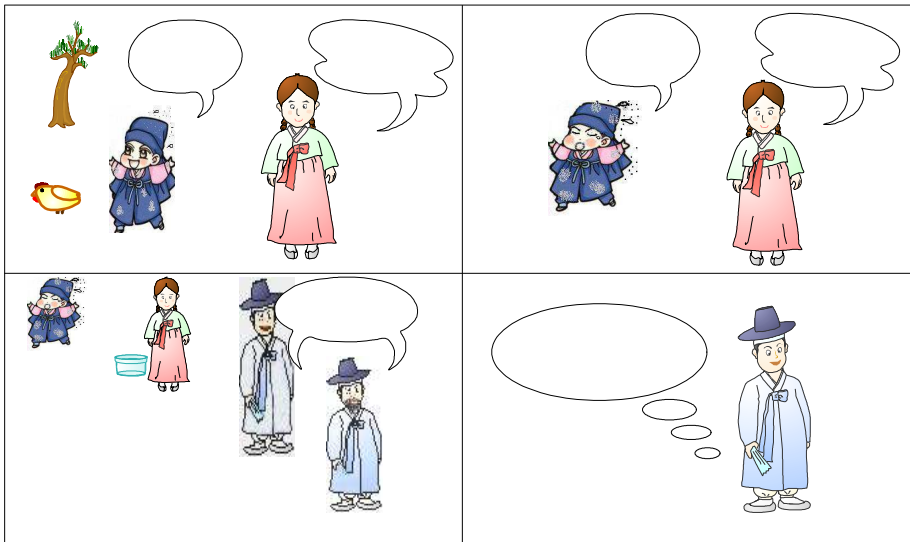
16) 이벽은 큰형수의 친정아우로, 누님 집을 드나들면서 다산 형제와 친한 친구가 되었다. 큰형수가 세상을 떠난 몇 년 뒤인 1784년 4월 15일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다산 형제들이 모였는데 이벽이 찾아왔다. 제사를 마치고 함께 서울로 가던 그날 두미협(팔당담 근처의 협곡)을 지나던 서울행 배 안에서 약진, 약용 형제가 이벽에 의해 천주교 서적을 읽게 되는데, 여기서 다산 집안의 신유사옥이 배태되었다.

2. 정약봉의 큰 형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느껴지는지, 작품의 세 번째 문단을 보고 짐작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3. 정약봉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글을 남겼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그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지도 찾아봅시다.

4. <큰 형수님의 추억>으로 미루어 볼 때 ‘묘지명’이라는 글의 갈래는 어떤 것인지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추측해 보세요.

5. 1, 2번 문항에 답했던 것을 참고하여 큰 형수의 모습이 담긴 네 칸 만화책을 완성해 봅시다.



작품을 읽고나면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장난꾸러기였던 다산의 어린 시절 모습과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곳곳하게 집안을 꾸려나간 형수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리게 될 것이다. 특히 제시된 글의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다산과 큰 형수에 대한 묘사가 각각 잘 드러나 있으므로 참고하여 답하도록 유도한다.

다산이 이 묘지명을 남긴 것은 형수에 대한 고마움 때문임이 틀림없다. 큰 형수에 대해 그의 감사하는 마음이 집약적으로 잘 드러난 부분은 마지막 명(銘)에서다. 이 부분에서 특히 큰 형수의 덕을 칭송하며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학습한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묘지명은 죽은 이를 추모·애도하기 위해 적는 글이며 마지막 명(銘)은 전체 내용을 총괄하는 부분이라는 정도로 글의 갈래에 대해 간략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이끌어준다.

마지막으로 활동을 정리하면서 제시된 네 칸 만화 속의 그림을 보고, 학생들이 각 인물의 말풍선을 채워보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살려 보다 흥미롭게 작품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우정과 풍류

당시 조선의 사대부에게 있어 ‘벗’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같은 뜻을 가지고, 시대와 자연을 함께 논하고 즐기는 소중한 존재였다. 특히 다산과 같은 문인(文人)들의 우정과 풍류 속에는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지만 낭만적으로 인생을 즐기는 모습이 드러난다.

다산은 ‘죽란시사(竹欄詩社)’를 통해 비슷한 나이대의 동료들이 모여 계절의 변화와 인생사 기쁨의 순간을 함께 즐겼고, 몇몇 벗에게 제안하여 비 내리는 세검정을 찾아갔으며, 남고(南阜)를 초대해 촛불에 비친 국화 그림자를 감상하기도 했다. 그의 젊은 관료 시절에 드러난 우정과 풍류의 낭만이 드러난 작품을 여기서 차례로 살펴보겠다.

* ‘죽란시사’와 관련된 아래 두 편의 글을 잘 읽고, 묵음에 대해 봅시다.

㉠ 내 뜨락의 꽃나무들 [竹欄花木記]

내 집은 명례방(지금의 명동)에 있다. 명례방에는 고관들의 저택이 많아, 번화한 네거리에는 날마다 수레바퀴와 말발굽이 서로 엇갈리며 달린다. 그러니 아침저녁으로 완상할 만한 연못이나 동산이 없다. 해서 내 집 뜰의 절반을 잘라 구획을 하고 좋은 꽃이나 과실나무를 구하여 화분에 심어 채워 놓았다.

석류 중에서도 잎이 두텁고 크며 열매가 단 것을 해석류라고도 하고 왜석류라고도 한다. 왜석류가 네 그루다. (중략) 수선화 네 포기, 한 화분에 심은 것이 한 개다. 돛자리 만한 파초가 한 그루요, 나이가 두 살 된 푸른 오동이 두 그루, 만향이 한 그루다. 각종의 국화가 열 여덟 개의 화

분에 담겼고, 부용 화분이 한 개다.

그런 다음, 오가는 종들이 옷자락으로 꽃을 건드리지 않도록, 서까래처럼 생긴 대나무를 구해 그 동북쪽에다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것이 소위 ‘죽란(竹欄)’이다. 조정에서 물러나오면 건을 빗겨쓰고 울타리를 따라 거닌다. 혹은 달빛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며 시를 짓기도 하니, 고요하여 산림이나 원포(園圃)의 정취가 있었다. 그래 시끄러운 수레소리도 거의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윤이서, 이주신, 한혜보, 채이숙, 심화오, 윤무구, 이휘조 등 몇 사람이 날마다 찾아와 얼큰하게 마셨으니, 이것이 소위 ‘죽란시사(竹欄詩社)’라는 것이다.¹⁷⁾

* 원포 - 과수나 채소 따위를 심는 뒤란이나 밭.

㉔ 살구꽃이 피면 한 번 모이고 [竹欄詩社書帖]

내가 일찍이 이숙(李叔) 채홍원(蔡弘遠)과 더불어 시 모임을 결성하여 함께 어울려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자고 의논한 일이 있었다. 이숙이, “나와 그대는 동갑이니, 우리보다 아홉 살 많은 사람과 아홉 살 적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그대가 모두 동의하는 사람을 골라 동인으로 삼도록 하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아홉 살 많은 사람과 아홉 살 적은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 열여덟 살이나 차이가 나므로 허리를 굽혀 절을 해야 하고, 또 앉아 있다가도 나이 많은 이가 들어오면 일어나야 하니, 너무 번거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보다 네 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우리보다 네 살 적은 사람에서 끊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열다섯 사람을 골라냈는데 이유수, 홍시제, 이석하, 이치훈, 이주석, 한치웅, 유원명, 심규로, 윤지눌, 신성모, 한백원, 이중련과 우리 형제 정약전과 약용 및 채홍원이 바로 그 동인들이다.

이 열다섯 사람은 서로 비슷한 나이 또래로, 서로 가까운 거리에 살며, 태평한 시대에 벼슬하여 그 이름이 가지런히 신적(臣籍)에 올라 있고, 그

뜻하는 바나 취미가 서로 비슷한 무리들이다. 그러니 모임을 만들어 즐겁게 지내며 태평한 시대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모임이 이루어지자 약속하기를, “살구꽃이 처음 피면 한 번 모이고, 복숭아꽃이 처음 피면 한 번 모이고, 한여름 참외가 익으면 한 번 모이고, 서늘한 초가을 서쪽의 연못에 연꽃이 구경할 만하면 한 번 모이고, 국화꽃이 피면 한 번 모이고, 겨울이 되어 큰 눈 내리는 날 한 번 모이고, 한해의 마지막에 화분의 매화가 꽃을 피우면 한 번 모이기로 한다. 모임 때마다 술과 안주, 붓과 벼루를 준비해서 술을 마시며 시가를 읊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이 어린 사람부터 먼저 모임을 주선토록 하여 차례대로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시작하여 반복하게 한다. 정기 모임 외에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으면 한턱 내고, 고을살이를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턱 내고, 승진한 사람도 한턱 내고, 자체가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한턱 내도록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이름과 규약을 기록하고 그 제목을 붙이기를 <죽란시사첩(竹欄詩社帖)>이라 했다. 그리한 것은 그 모임이 대부분 우리집인 죽란사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후략)¹⁸⁾

다산은 젊은 시절 학문 연구 뿐만 아니라 시문을 짓고 문우(文友)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다. 그가 관직에 있었던 기간은 11년에 지나지 않지만, 그 기간동안 많은 교우관계를 폭넓게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다산이 중심이 되어 모인 ‘죽란시사(竹欄詩社)’의 구성원은 앞서 작품에 나온 대로 모두 15명이었다.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9명이 초계문신²⁰⁾이란

17) 박무영, 앞의 책, p.60~61.

18) 강희맹 외, 『아름다운 우리 고전 수필』, 을유문화사, 2003..

19) 장승구, 『정약용과 실천의 철학』, 서광사, 2001 참조.

20) 조선 후기 규장각(奎章閣)에 특별히 마련된 교육 및 연구과정을 밟던 문신들. 정조가 즉위 직후 규장각을 설립한 것에는 정치력으로 세력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적으로는 이념과 정책의 연구를 진흥하려는 이면의 목적이 있었다. 그 구체적 장치로서

점에서 이 시사의 위치 또는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30대의 귀족적 관료문인들의 시사이자 정조조의 문단을 대표하는²¹⁾ 죽란 시사는 동인 모두가 관직에 진출한 젊은 문신들이었다. 따라서 특유의 시절을 보내던 그들의 눈에는 자연의 변화에 따른, 또는 인생사의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었다. 이것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가졌던 모임의 성격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²²⁾

1. <내 뜨락의 꽃나무등>과 <살구꽃이 피면 한 번 모이고>를 읽고, ‘죽란시사’는 누가 무엇을 하는 모임인지 정리해 봅시다.

2. 두 글의 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이해해 봅시다.

회원 (가나다 순)	정기 모임	비정기 모임
①	① 때 모임	① 사냥이 마견
②		
③	② 때 모임	② 사냥이 마견
④		
⑤	③ 때 모임	③ 사냥이 마견
⑥		
	④ 때 모임	④ 사냥이 마견

재능 있고 젊은 인물들을 의정부에서 선발해 국왕에게 보고한 후 규장각에 소속시켜 학문을 연마하게 하였다.

21) 장승구, 앞의 책, p.248

22) 장승구, 앞의 책, p.248 ~ 249 참조.

죽란시사의 동인들은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시회(詩會)를 열기로 약속하였다. 정기적 시회는 ‘자연의미를 감상하면서 풍류적 삶과 낭만적 흥취의 순간들을 영원으로 존속시키고자’한 것이고, 비정기적 시회는 ‘인생사에서 환희가 충만한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⑦	⑤	때 모임	
⑧			
⑨			
⑩	⑥	때 모임	
⑪			
⑫	⑦	때 모임	
⑬			
⑭			
⑮			
⑯			

3. 작성한 위 표를 보며 ‘죽란시사’의 정기적, 비정기적 모임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4. ‘죽란시사’의 회원이 당시 정약봉의 사회적 상황은 어떠했다고 추측되는지 근거가 되는 구절을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 오늘 학습한 글은 정약봉이 유배 당하기 전, 35세(1796)에서 39세(1800)까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관료로 지내던 시점에 쓰여졌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글과 비교해보면, 처해진 상황에 따라 글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가 ‘죽란시사는 비슷한 또래의 관료 15명이 모여 음주 및 풍류를 즐기는 시 모임이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의 인지에서 시작하도록 지도한다. 회원의 이름과 정기·비정기 시회를 직접 표로 정리하는 과정은 글로 펼쳐진 상태보다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기 쉬울 것이다. 예시 답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회원 (가나다 순)	정기 모임	비정기 모임
① 신성모	① 살구꽃이 필 때 모임	① 아들을 얻은 사냥이 마견
② 심규로		
③ 유원명	② 복숭아꽃이 필 때 모임	② 지방관이 된 사냥이 마견
④ 윤지눌	③ 한여름 참외가 익을 때 모임	③ 승진한 사냥이 마견
⑤ 이유수		
⑥ 이석하	④ 서지에 연꽃이 필 때 모임	④ 자제가 등과한 사냥이 마견
⑦ 이주석		
⑧ 이종련	⑤ 국화가 필 때 모임	
⑨ 이치훈	⑥ 겨울에 눈 내릴 때 모임	
⑩ 정약용	⑦ 세모에 화분에 매화가 필 때 모임	
⑪ 정약전		
⑫ 채홍원		
⑬ 한백원		
⑭ 한치응		
⑮ 홍시제		

표를 채워 완성한 다음에는 ‘죽란시사’가 자연의 변화에 따른 정기 모임과 축하받을 좋은 일이 생긴 회원이 마련하는 비정기 모임으로 나뉘어 약속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모임에서 이렇게 풍류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다산을 비롯한 회원 모두가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임을 추정하는 데까지 학생들의 인식이 미칠 수 있도록 교사가 주의를 기울인다.

다산이 당시를 태평한 시대로 인식할 만큼 편히 지내던 시절이었음은 ㉠에서 그의 집이 변화한 명례방에 위치해 있으며, 뜰에 좋은 꽃과 나무를 심어 ‘죽란’을 조성했다는 점, 자연의 변화와 동료들의 경사스러운 일에 술과 시를 함께 즐기는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의 밑줄

그어진 부분을 통해 다산이 직접 기술해놓고 있어 학생들이 찾아내기에 어렵지 않다.

활동이 모두 끝나면 다산의 작품이 그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나 담고 있는 생각 등에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비단 다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교사가 정리하여 언급한다. 고등학교 「국어(상)」에서 학습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²³⁾ 예로 들어 글에 나타난 다산의 심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도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정약용과 친구들이 세검정을 찾아간 모습을 담은 아래 글을 읽고, 문음에 대해 봅시다. 사진 자료도 참고하여 보세요.



소나기 속의 폭포 구경 - 세검정의 절승 [游洗劍亭記]

신해년(1791) 여름에 나는 한혜보(韓溪甫) 등 몇몇 사람들과 명례방-지금의 명동-에서 자그마한 모임을 가졌다. 술이 이미 돌고 있었는데, 혹독한 더위가 찌는 듯하더니 먹구름이 갑자기 사방에서 일어나며 마른 우레가 은은히 들려왔다. 내가 술병을 차고 벌떡 일어나면서, “이것은 폭우가 쏟아질 징조일세. 자네들 세검정에 가보지 않으려나? 가지 않겠다는 사람에겐 벌주로 술 열 병을 한꺼번에 주지.” 하니, 모두들 “좋지, 이를 말인가.” 하였다.

23) 본고에서는 목차에 따라 ‘3. 실용의식의 표현’ 부분에서 다루었다.

그리하여 마부를 재촉하여 출발하였다. 창의를문을 나서자 벌써 손바닥만한 빗방울이 두세 방울 떨어진다. 말을 빨리 달려 세검정 아래 이르니, 수문 좌우의 산골짜기 사이는 이미 암코래 솟코래가 물을 뿜어내는 듯했고, 옷소매 역시 빗방울로 얼룩덜룩했다. 정자에 올라 자리를 펴고 앉으니, 난간 앞의 나무들은 이미 미친 듯 나부끼고 뿌려대는 빗방울로 한기가 뼈에까지 스며들었다. 그러더니 비바람이 크게 일며 산의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순식간에 계곡을 메우고 골짜기를 울리며 물결이 일어 부딪치며 쿵쾅거리고, 모래를 일고 바위를 굴리며 와르르 달려 달아난다. 물이 정자의 주춧돌을 할퀴는데, 그 형세가 웅장하고 소리는 맹렬하여 서까래와 난간이 흔들린다. 두려워라! 안정할 수가 없었다. 내가 “어떤가.” 하니, 모두들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술과 음식을 내오게 하니 농지거리가 질탕하게 일어났다.

잠시 있으니 비가 그치고 구름도 걷혀 산골 물도 점점 잔잔해졌다. 저녁 해가 나무 사이에 걸려, 울긋불긋 온갖 광경을 연출하였다. 서로 베고 누워서 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농담도 하였다. 잠시 후, 심화오(沈華五)가 이 소식을 듣고는 정자로 뒤쫓아 왔다. 그러나 물은 이미 잔잔해진 뒤였다. 처음에 화오도 불렀으나 오지 않았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고 욕도 했다. 그와 함께 술 한순배를 더 마시고 돌아왔다. 그때 홍약여(洪約汝), 이휘조(李輝祖), 윤무구(尹无咎)도 함께였다.²⁴⁾

다산이 30세 되던 1791년에 쓴 기문(記文)이다. 주제 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산수를 유람한 체험을 적은 ‘산수유기(山水遊記)’에 해당한다.²⁵⁾ 신유사옥으로 인한 생의 시련이 불어닥치기 전, 낭만적이고 구김살 없는 기상이 내용이나 문체에서 모두 잘 드러나고 있다. 세검정에 비가 내리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함과²⁶⁾ 동시에 빠른 호흡으로 박진감 있게 전개함으로써 문

24) 박무영, 앞의 책, p. 150.

25) 박철완, 「다산 기문학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7, p.35 참조.

26) 박철완, 「다산 기의 특징과 주제의식 고찰」, 청람어문학 19, 1997, p.68에서는

체에서도 화려하고 쾌기 넘치는 짧은 기상이 느껴진다.

1. <소나기 속의 폭포 구경>을 읽고, 정약봉은 친구들과 세검정의 어떤 모습을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인지 찾아봅시다.
2. 이 글 두 번째 문단의 비 내리는 장면에 대해 정약봉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서술 방식은 읽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말해 봅시다.
3. 이 글 속에서 나타낸 것처럼 정약봉이 자연의 모습을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 당시 그의 처지와 관계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4. 옛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즐기는 방식이 어떠하다고 생각되는지, 오늘날과 비교하여 말해 봅시다.
5. 주위에 있는 자연의 모습을 주의깊게 보고, 진심으로 아늑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각자의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해 봅시다.

다산이 친구들에게 세검정으로 갈 것을 제안한 건, 폭우가 쏟아져 산골짜기에서 힘차게 뿜어내는 물의 모습과 그 느낌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다. 세검정에 이르러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의 장면은 쏟아지는 물줄기 만큼이나 강한 힘과 긴장감이 느껴지도록 생생히 묘사해 놓았다. 이렇게 산수자연을 벗들과 더불어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즉 다산이 유배를 당하기 전 관직에 있던 득의의 시기였음을 학생들이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산 기에서 표현 기법면의 특징으로 묘사, 대화, 비유가 풍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술을 가지고 세검정을 찾아간 옛 사람들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하도록 한다. 예전과 같은 정취와 낭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계절에 따라 꽃놀이를 가거나 산과 바다를 찾는 이들이 많다. 반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편리하도록 ‘개발’한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도 있다. 학생들이 저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답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한가하게 자연을 찾아 즐길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그 자체를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꼭 깊은 산 속의 경치와 같은 거창한 자연이 아니더라도 길가에 핀 예쁜 꽃이나 비 갠 뒤 보았던 오묘한 하늘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런 주변의 자연 환경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게되었던 경험을 상기시키고, 나아가 바쁜 일상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여유를 가지는 자신만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 국화를 소재로 한 아래 두 편의 글을 잘 읽고, 문음에 대해 봅시다.

㉞ 국화 그림자를 읊은 시의 앞머리에 [菊影詩序]

국화가 여러 꽃 가운데 특히 뛰어난 점이 네 가지 있다. 늦게 피는 것이 하나이며, 오래도록 견디는 것이 하나다. 향기로운 것이 하나이고, 고우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싸늘하지 않은 것이 하나다.

세상에서 국화를 사랑한다고 이름나고 국화의 취미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그 사랑하는 까닭이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이 네 가지 말고도 또 특별히 촛불 앞의 국화 그림자를 사랑한다. 밤마다 그 그림자를 즐기기 위하여 담장 벽을 쓸고 등잔불을 켜으며, 쓸쓸히 그 가운데 앉아서 스스로 즐겼다.

하루는 남고(南臯) 윤이서(尹彝敍)에게²⁷⁾ 들러서 “오늘 저녁에 우리집에 놀러와 함께 자면서 국화를 구경하시죠.”라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윤이서는 “아무리 국화가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어찌 밤에 구경할 수 있겠나?” 하면서 몸이 아프다 핑계 대고 사양하였다. 그래도 나는 “한 번 구경만 해보시죠.” 하면서 굳이 청하여 집으로 함께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일부러 동자를 시켜 촛불을 국화 한 송이에다 바싹 가져다 대게 하였다. 남고를 이끌어서 보이면서 “기이하지 않은가요?” 하였더니, 남고가 한참이나 들여다보고는 “자네의 말이 이상하네. 나는 이게 하나도 기이한 줄을 모르겠네.” 하였다.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하였다.

얼마 뒤에 다시 동자를 시켜 법식대로 하였다. 이에 옷걸이나 책상 등 산만하고 들쭉날쭉한 물건들을 다 치우고, 국화의 위치를 바로잡아 벽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 뒤에 국화를 비추기 알맞은 곳에다 촛불을 놓아서 밝히게 하였다. 그러자 기이한 무늬와 이상한 모습이 갑자기 벽에 가득하였다.

그 가운데 가까운 그림자는 꽃과 잎이 서로 어울리고 가지와 결가지가 정연하여, 마치 묵화를 펼쳐놓은 것 같았다. 그 다음 그림자는 너울대고 어른거리며 춤추듯 하늘거리, 마치 달이 동쪽에서 떠오를 때에 락의 나뭇가지가 서쪽 담장에 걸린 것 같았다. 멀리 있는 그림자는 산만하고 흐릿하여 가늘고 얇은 구름이나 노을 같았다. 사라지고 없어지거나 소용돌이치는 그림자는 질펀하게 뒤치는 파도 같았다. 번쩍번쩍 엿비슷해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었다. 그제서야 윤이서가 큰 소리를 지르며 뿔 듯이 기뻐하였다. 손으로 무릎을 치며 “기이하구나. 이거야말로 천하에 빼어난 경치일세.”라고 감탄하였다.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 술을 마시게 하였다. 술이 취하자 서로 시를 읊으며 즐겼다. 그 자리에는 이유수, 한치웅, 윤지눌도 같이 모였었다.²⁸⁾

㊤ 국화는 그대로인데 [菊花同僊父无咎竹欄宴集]

옛적에 빛은 국화주를

금년에 다만 조금씩 잔을 기울이네.
 남고는 오히려 예기를 읽으며
 동협으로 밭 갈러 이미 들어갔네.
 남고 없는 성읍에 풍류가 덜해졌는데
 산림의 형상은 옛 모습 그대로 있구나.
 그윽한 국화향기 다하지 않았는데
 이미 한 해는 저물어 추워졌구나.

舊日黃花酒 今年只細傾
 南臯猶讀禮 東峽已歸耕
 城邑風流減 山林既象瀛
 幽香雖未歇 亦既歲崢嶸²⁹⁾

* 동협(東峽) - 경기도 동쪽 지방과 강원도 지방을 아울러 이르는 말.

㉗, ㉘ 두 작품 모두 국화를 소재로 하여 낭만적인 정취를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첫 번째 <국화 그림자를 읊은 시의 앞머리에>는 밤에 촛불로 생긴 국화 그림자를 감상하는 모습이 표현됨으로써 풍류를 찾아 즐기는 다산의 모습을 생생히 알 수 있다. 두 번째 시는 다산이 남고를 그리는 우정의 세계가 그려져 있는 작품이다. 활짝 핀 국화를 감상하며 시회(詩會)를 열었을

27) 남고는 윤규범(尹奎範 : 1752~1821)의 호이고, 이서는 그의 자다. 처음 이름은 지범(持範)이다. 본관은 해남으로 정조1년 증광문과에 급제, 병조참의를 지냈다. 문인화가 윤두서의 증손이니, 다산에게는 외척이다. 다산보다 열 살이나 많았으므로 '죽란 시사'에 동인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자주 어울렸으며, 이들이 사백(詞伯)으로 추대하였다.

28) 허경진 옮김, 『다산 정약용 산문집』, 한양출판, 1994, p.126~128.

29) 김상홍, 『다산 정약용 문학연구』, 단대출판부, 1985, p.255. 학생들에게 제시할 것을 고려하여 제목을 붙였다.

때 글 잘 짓고 풍류남아였던 남고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 성읍에 풍류가 덜 해졌다면, 남고를 그리며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채 옛 모습 그대로인 무정한 자연에 대한 원망도 표현되어 있다.³⁰⁾

1. <국화 그림자를 읊은 시의 앞머리에>와 <국화는 그대 큰인테> 두 작품을 읽고 정약용이 남고 운이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말해 봅시다.

2. ㉠에서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고,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이유를 ㉡를 참고하여 추측해 봅시다.

3. 정약용과 같이 친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밤을 보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로 친구가 놓러왔는지 또는 자신이 놓러갔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4. 정약용은 운이서보다 열 살이나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통하는 친구가 있나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 사이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두 작품을 통해서는 자연의 풍류를 즐기던 낭만적인 모습과 다산의 진심어린 우정의 세계를 함께 엿볼 수 있다. 작품을 읽은 학생들은 다산과 남고가 서로의 집에 놀러가 잠을 잘 정도로 격의 없는 벗이라는 점과 다산이 남고를 진심으로 대하여 제시된 시에서는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시의 밑줄 친 부분은 남고가 떠난 후 국화를 보며 두 사람이 과거에 함께 국화를 감상했던 생각에 그리운 마음이 드는데 자연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대로인 데 야속함을 드러내고 있다.

30) 김상홍, 앞의 책, p.255 참조.

김종필, 「다산 정약용의 서정시 연구」, 순천향대 석사논문, 2001, p.57 참조.

학생들이 두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떠올려 볼 수 있도록 교사는 유도한다. 작품에서처럼 친구와 함께 자면서 놀았던 기억은 누구나 갖고있을 것이므로,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를 초대하거나 자신이 초대를 받았는지 떠올려보게 한다. 또 나아가 친구와 집에서 함께 자는 것은 둘의 관계가 어떠한 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다산과 남고처럼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우정을 느낀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가족구성원으로서 다산의 남편, 아버지로서의 모습과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있던 시절 풍류를 즐기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사회가 아닌 개인의 층위에서 살펴본 다산의 평범하고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위대한 실학자, 정치인이기 이전에 가정에서 그는 여느 가장과 다름없이 가족을 걱정하고 사랑하며, 친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노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다. ‘죽란시사’를 형성하고, 음주를 곁들여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서도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당시 그의 사회적 상황도 함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학교의 문학교육을 통해서 접할 수 없었던 다산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담긴 개성있는 작품들이므로, 학생들이 보다 친근한 느낌으로 학습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교과과정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은 작품들이지만 다산의 작품을 학습하는 시간에 연계시켜 지도한다면 다산의 생애와 문학의 전체 모습을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회의식의 문학적 표현

다산 문학 세계에서 사회적 성격의 작품들은 사회·국가의 지식인으로서 그 책임을 실현하려는 목적의식이 드러난다. 이는 다산 문학의 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뒤에서 살펴볼 일상적 작품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평범한 개인으로서 다산은 주변의 자질구레한 일상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는데, 사회적 성격의 작품 역시 이를 바탕으로 단지 그 범위가 가정에서 사회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³¹⁾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은 유배기에 쓰여진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서 그들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고발하면서 문학 작품으로 이를 표현한 것이다.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시> <보리 타작> <탐진촌요>는 모두 다산의 사회적 인식이 바탕이 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사회의 부패상에 대한 비판의식과 농촌·농민을 위하는 마음, 즉 애민의식이 배어있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다산의 사회적 의식이 드러난 작품들의 교육 방안을 먼저 살펴보겠다. 단 문학 교과서 1종에 수록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유배기에 쓰여진 것이지만, 사회의식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이 담긴 <수오재기>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을 학습하는 데에도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되는 다산의 생애와 사회적 위

31) 박무영, 『정약용의 시와 사유방식』, 태학사, 2002에서는 정약용 시 세계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시작 의도상의 목적성, 표현상의 객관화 지향성, 내용상의 일상성 지향 등을 꼽고 있다. 또 이러한 시적 특성들은 결국 정약용의 사유체계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동일한 뿌리로부터 설명되며, 특히 일상성의 긍정이라는 요소는 ‘일상세계 내에서의 가치실현’을 위한 바탕이 되기에 일상성의 바탕에서 행해지는 가치실현이 결국 앞으로의 방향을 지니게 되어 ‘사회시’라는 구체적 결과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정약용의 시 중 일상성이 드러나는 작품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드러난 작품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시 뿐만 아니라 정약용 문학에서 모두 드러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치.상황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지에 관련 문항을 함께 제시해 보았다.

① 사회비판 의식

유배지에서 다산은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들으면서, 당시 사회의 부패상과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을 작품에 담았다. 유배를 당한 처지였기에, 또 문학 작품에 표현한 것이기에 비유나 우화적 수법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긴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주제의식은 분명하였다. 여기서는 다산의 사회비판 의식이 드러난 작품을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아래 정약봉의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대해 봅시다.

고시(古詩) 8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왜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 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왜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鶯子初來時	喃喃語不休
語意雖未明	似訴無家愁
榆槐老多穴	何不此淹留
燕子復喃喃	似與人語酬
榆穴鶴來啄	槐穴蛇來搜 ³²⁾

<고시(古詩)> 27수 중 한 수로, 문학 교과서 1종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겉으로는 제비가 황새나 뱀으로부터 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당시 지배층들이 서민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우화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풍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에 나오는 제비는 지배 세력으로부터 착취당하는 서민층을 의미하며, 황새와 뱀은 서민들을 괴롭히는 지배 세력을 의미한다.³³⁾ 다산은 다른 글에서도 관리들의 약탈로 인해 백성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을 여러 차례 고발하였다.³⁴⁾ 다산의 우화시는 이렇게 조선 후기 실상을 묘사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형태를 띤다.

이 작품은 교과서 ‘(5) 역사와 현실 앞에서’라는 소단원에 포함되어 있어, 문학 작품에 나타난 당시의 현실과 그 현실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 풍자적 수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³⁵⁾ 따라서 수업에서는 이

32)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상)』, 두산, 2002, p.105.

33) 송재소, 「다산 정약용론」, 『조선후기한시작가론』, 이회문화사, 1998.

제비와 황새, 제비와 뱀이 대조되어 있는데, 황새나 뱀은 자기들보다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자연계의 강자이고 제비는 약자이다. 다산은 자연계에서의 강자와 약자간의 생존경쟁에서 빛어지는 대립관계에도 물론 관심이 있었겠지만, 제비에 가탁(假託)된 일반 민중의 슬픔과 황새·뱀에 가탁된 지배층의 횡포를 말하려는 것이 그 의도인 듯하다.

34) 우한용 외, 앞의 책, p.106.

35) p. 106 ‘작품 속으로’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1.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추리해 보자.

작품을 바탕으로 하되 우화적 수법이 이용된 다산의 다른 시를 이용하여 학습지를 구성해 볼 수도 있다.³⁶⁾ 실제로 18종 문학 교과서 중 한 곳에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산의 작품이 등장하는 수업 시간 중에 또는 수업 후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래 정약용의 글을 잘 읽고, 묵음에 대해 봅시다.

승냥이와 이리(豺狼)

승냥이여 이리여
 이미 우리 송아지 빼앗았으니,
 우리 양일랑은 물어가지 마라.
 장롱엔 이미 속옷도 없고,
 시렁엔 이미 치마도 없다.
 향아리엔 소금 한 톨 남아있지 않고,
 뒤주엔 쌀 한 톨 남지 않았노라.
 큰 술 작은 술 다 앗아가고,
 숟가락, 젓가락 다 훔쳐갔네.

2. 이 시에서 ‘제비’, ‘뱀’, ‘황새’는 작품이 쓰여지던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어떤 사람을 비유하는지 말해 보자.

3. 이 시에서 화자가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36) 다산의 작품에는 우화적 수법을 이용한 시가 많은데, 물고기와 바다·신룡(古意 27首), 고래와 솔피(海狼行), 오징어와 백로(烏鰂魚行), 고양이(狸奴行) 등 주변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강자와 약자, 때론 강자와 강자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로 정치나 세태의 풍자·비판을 목적으로 한 작품들이다. 기존 연구물 중 우연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는데, 허수준의 「다산 정약용의 우연시 연구」(전남대 석사논문, 2000)는 다산의 우연시를 표면적인 우의(寓意) 내용과 내면적인 진의(眞意) 내용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해 놓고 있다.

도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데

어찌면 이다지 못살게구나.

살인자 이미 자살했는데

또 누구를 죽이려느냐?

(생략)

豺兮狼兮

既取我犢 毋噬我羊

笥既無襦 橐既無裳

甕無餘醢 瓶無餘糧

錡釜既奪 匕筋既攘

匪盜匪寇 何爲不臧

殺人者死 又誰戕兮³⁷⁾

여기서는 <승냥이와 이리(豺狼)>로 학습지를 구성해 보았다. 유배지 강진에서 백성들의 안타까운 생활상을 보고 묘사했던 작품을 그가 모아서 엮은 <전간기사(田間紀事)> 6편 가운데 다섯 번째 작품이다. 지방의 아전들이 형사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원만하게 수습·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사건건 트집잡아 뇌물을 받는 횡포를 그리고 있다.³⁸⁾

37) 민족문화추진회 엮음, 『다산시문집』, 1994, p.459~460.

38) 민족문화추진회 엮음, 앞의 책, p.459.

시랑(豺狼)은 백성들의 이산을 슬퍼한 시다. 남쪽에 두 마을이 있는데, 하나는 용촌(龍村)이고 또 하나는 봉촌(鳳村)이다. 용촌에는 갑이라는 자가, 봉촌에는 을이라는 자가 각기 살고 있었는데 서로 장난삼아 때린 끝에 을이 우연히 병들어 죽었다. 두 마을 백성들은 관가의 검시(檢屍)가 두려워서 갑으로 하여금 자진하도록 권했다니 갑은 그것을 흔연히 승낙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마을을 무사하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관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두 마을의 죄상을 캐면서 돈 3만 냥을 뜯어냈는데, 두 마을에서는 그것을 마련하느라 베오라기 하나, 곡식 한 톨 남은 것이 없어 그 지독함이 흉년보다 더했다. 그리하여 그 관리들이 돌아가는 날 두 마을도 다

1. <豺狼>의 창작 배경 및 당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 <豺狼>을 읽고, 작품 속 우한적 수법을 이해해 봅시다.
 - ① 승냥이, 이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 ② 이 시의 한자는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것일까요? 밑줄 그은 부분을 참고하여 대해 봅시다.
 3. 이 작품을 통해 정약봉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지 대해 봅시다.
 4. 우한적 기법이 작품에서 가지는 혼란은 무엇인지 당시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5.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 하나를 골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를 써봅시다.
- *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는 ‘다산연구소’나 ‘다산학술재단’ 등의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볼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와서 쓸 때 그대로 옮겨오는 것보다 내 의도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³⁹⁾

다산 문학의 형성 과정 및 배경을 알아보는 예비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조선 후기 사회상을 알게 되었을 것이나, 이 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창작 배경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료를 직접 찾아보도록 지도한

떠나고 오직 부인 하나가 남아 현령(縣令)에게 그 사정을 호소했더니, 현령이 하는 말이 “네가 나가서 찾아보라.” 했다는 것이다.

39)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240에서 자료 출처에 대한 지도 내용을 실고 있다.

다.40) 이 때 도움이 될 만한 인터넷 사이트나 책 등을 추천하는 것이 자료 검색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스스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옥사를 핑계로 농민을 괴롭히는 조선 후기 관리들의 횡포가 <승냥이와 이리>의 창작 배경임을 알게 되고, 아울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배경지식을 갖춘 후에, 작품을 읽고 학습지를 작성하는 동안 우화적 수법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작품 속에서 송아지나 양식을 빼앗아가는 ‘승냥이’와 ‘이리’는 농민을 괴롭히는 아전들을 비유한 것이다. 옷가지도, 식량도 어느 하나 남은 것이 없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농민이다. 지방관들의 횡포에 고통 받고 있는 농민의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은 조선 후기 부패한 관리와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되 우화적 기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부패한 지방관들을 직접 지칭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소재로 삼아 <승냥이와 이리>와 같은 방식으로 시를 쓰도록 지도한다. 교육, 입시 문제와 같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부터 환경, 범죄 등 사회적 문제까지 소재는 다양하다.

* <탐진촌요>의 일곱 번째 수층 장 읽고, 묵음에 대해 봅시다.

탐진촌요(耽津村謠)

40)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 답안의 내용은 각주 37과 동일하므로 다시 제시하지 않았다.

7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 가네.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삼월 중순 세곡선(稅穀船)이 서울로 떠난다고.

棉布新治雪樣鮮 黃頭來博吏房錢
漏田督稅如星火 三月中旬道發船⁴¹⁾

- * 황두 - 중국 한나라 때 선박을 관장하던 벼슬 이름으로, 여기서는 지방 관리를 이룸.
- * 누전 -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전토.
- * 세곡선 - 세곡을 실어나르는 배. 세곡은 조세로 바치는 곡식을 말함.

다산이 강진 유배 당시에 지은 <탐진촌요>는 <탐진농가(耽津農家)>, <탐진어가(耽津漁歌)>와 더불어 3부작을 이룬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곳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목격하고 농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관리들의 수탈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⁴²⁾ 피땀 흘려 짜낸 무명을 황두들이 뺏어가고, 성화 같은 세금 독촉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삶의 모습이 눈에 잡힐 듯 다가온다.

다산의 한시 가운데는 이와 같이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고달픈 삶을 노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통해 그는 당시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고발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⁴³⁾

41)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p. 149.

42)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p.150 참조.

1. <탐진촌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당대 현실은 어떤 것인지 말해 봅시다.

2. 이 작품은 정약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추측해 봅시다.

3. 정약봉이 이 작품을 지은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4. 밑줄 그은 부분에서 사용된 표현기법은 무엇인지 대해 봅시다.

* <탐진촌요>는 모두 15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탐진은 전남 강진의 옛 이름이지요. 우리가 읽은 일곱 번째 수 외에 전체 내용을 찾아, 당시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더 담겨있는지 감상해 봅시다.

문학 교과서 1종에 실린 작품이다. 다산의 비판적 현실 인식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습을 짐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어⁴⁴⁾ 다산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⁴⁵⁾

43) 박경신 외, 앞의 책, p. 68~69 참조.

44)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p.189에서는 교과서에 <탐진촌요>를 수록한 이유와 지도 방안을 밝히고 있다. 제재 선정 이유로는, 다산이 당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조선 전기의 한시와 조선 후기의 한시 사이에서 드러나는 주제나 내용상의 차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도할 때에는 제재와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해석 자체가 아닌 시가 의미하는 바를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창작 배경과 다산의 사상이 형상화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해 놓고 있다.

45)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하)』, p.151의 ‘생각 넓히기’에서는 당시 사회상과 다산의 의식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혼자 하기> 1. 이 한시와 다음의 한시가 공통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사회 현실은 무

<탐진촌요>를 읽고, 먼저 학생들이 작품 내용으로 미루어 당시 사회상이 어떠했을지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굽게 짜놓은 무명을 황두가 빼앗아가는 모습, 세금 독촉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모습 등을 통해 조선 후기 관리들의 횡포가 어떠했으며 농민들의 고달픔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아픔보다도 그들의 고단한 삶을 염려하여 당시 사회의 부패상과 탐관오리를 비판했다. 이 같은 그의 가치관과 생활을 작품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작품의 내용과 배경을 생각해본 후 마지막으로 표현기법을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작품의 전체 분량을 생각해 볼 때, 제시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서 밀줄 그은 부분을 통해 직유법과 도치법이 사용되었음을 찾아낼 수 있다.

② 애민 의식

사회구성원으로서 특히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던 다산은 사회의 부패상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도 자신의 작품에 담았다. 민중들의 일상과 그들의 노동에서 건강한 삶의 기쁨을 찾았고, 흉년에 탐관오리의 횡포까지 겹쳐 굶어죽은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조문(弔文) 형식의 글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작품

엇인지 생각해 보자. -이달의 <습수요(拾穗謠)> 제시
<함께 하기> 2.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 (1) 다산의 경우, 시 창작의 주된 동기와 이를 통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2) <탐진촌요>를 비롯한 다산의 시에 반영된 정신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을 각각 한 편씩 살펴보겠다.

* 농민들의 모습이 담긴 정약봉의 아내 글을 잘 읽고, 뜻에 대해 봅시다.

보리 타작(打麥行)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영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응혜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濁酒如新菖瀆白	大碗麥飯高一尺
飯罷取枷登場立	雙肩漆澤翻日赤
呼耶作聲舉趾齊	須臾麥穗都狼藉
雜歌互答聲轉高	但見屋角紛飛麥
觀其氣色樂莫樂	了不以心爲形役
樂園落郊不遠有	何苦去作風塵客 ⁴⁶⁾

* 한 자 : 일 척. 약 30cm 가량.

* 도리깨 : 곡식의 낱알을 떠는 데 쓰는 농구의 하나.

문학 교과서 5종에 실린 한시 <보리 타작>이다. 결구에 해당하는 11~12행을 통해 시적 화자가 관직에 있었던 경험을 지닌 사대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다산 자신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보리 타작하는 농민의 모습을 정겨운 시선으로 묘사하면서 그 건강한 삶에 감탄하고, 노동하는 삶이야말로 기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육체와 정신이 통일되어 있는 농민의 모습에서 벼슬에 얽매었던 자신을 반성하기도 한다. 농민의 건강한 노동을 관찰한 끝에 삶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산은 조선 후기 민중들의 모습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표현하여 그들의 일상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찾고자 한 당대 진보적 지식인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⁴⁷⁾

수업 시간에 <보리 타작>은 다산 시의 사실성을 강조하며 진행된다. 그가 실학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 제도의 모순과 삼정의 문란, 백성들의 고뇌, 농어촌의 가난 등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사실주의적 시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⁴⁸⁾ 앞서 살펴본 개인 다산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이 드러난 작품들도 이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과서에서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사실성 및 일상성의 반영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학생들의 활동은 작품의 기본 내용 이해와 ‘농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⁴⁹⁾

46)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상)』, 케이스, 2002, p. 140.

47) 박경신 외, 『꽃보다 아름다운 문학』, 금성, 2003, p 64~65 참조.

48) 김병국 외, 앞의 책, p.140~141에서는 <보리 타작>을 본시 학습 내용으로 다루면서, 작품 전문에 이어지는 ‘이해와 활동의 길잡이’와 ‘자료실’을 통해 다산 시는 사실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는 내용을 실고 있다.

49) <보리 타작>이 수록된 문학 5종 교과서 중 3종에 제시된 활동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화자는 어떤 사람이며,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본문의 어떤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지 대해 봅시다.
2. 정약용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문학에 농민들의 모습을 생생히 표현하게 되었을까요? 또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3. 김홍도의 그림 <타작>을 보고, 농민들과 양반의 모습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 봅시다. 또 <보리 타작>에 표현된 농민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4. 자신은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일의 보람을 느꼈는지 생각해 봅시다.

출판사	학생 활동 문항
케이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시에서 친밀감을 주는 평민적인 시어를 모두 찾아보자. 2.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 시의 의의를 말해 보자. 3. 이 시에서 '주고받는 노랫가락'은 노동하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농민들이 일하면서 부르는 민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더 나아가 그러한 민요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설명해 보자. 4. 이 시에서 농민들의 건강한 삶이 묘사된 부분을 산문으로 표현해 보자.
지학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시에는 괴로운 현실이 아니라 즐거운 현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말해 보자. 2. 약동하는 생명의 건강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을 찾아 그 시적 효과를 말해 보자. 3. 이 시의 화자는 보리 타작을 하는 농민의 삶과 벼슬길을 헤매는 사람 [風塵客]의 삶을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한 정약용의 생애를 바탕으로 이러한 생각이 싹튼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디딤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시에서 평민들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어를 찾아보자. 2. 이 시에서 농민들의 건강한 삶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시행을 지적해 보자. 3. 10행의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보자. 4. 농민들의 삶을 통해 이 시의 시적 화자가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다.

5.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색을 보거나 들은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해 봅시다.



김홍도 <타작>(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먼저 농민의 생활 모습을 정겨운 시선으로 노래하고 있는 이가 사대부라는 점을 마지막 구절을 통해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유배지에서 농민의 생활 모습을 직접 관찰하게 되면서 다산은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고 더욱 애정을 갖게 되었고, 이 작품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작품에 표현하였다.

9~11구에서는 농민들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비교적 직접 드러나 있다. 보다 높은 신분의 양반이 농민의 노동하는 모습에 동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타작>에 나타난 농민들의 모습은 다산 시에 표현된 즐겁고 힘찬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 모습을 비스듬히 누워 바라보는 양반의 모습은 시적 화자의 시선과는 차이가 있다. 흐뭇한 표정을 짓고있긴 하지만 농민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해서 시에서 다산이 농민의 건강한 삶이야말로 기쁘고 본질적인 것이라 말하는 태도와는 다르다.

학생들이 이런 점을 스스로 찾아보며 작품에 표현된 다산의 농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그들의 삶을 긍정하는 마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지를 구성할 때 <타작>과 같은 시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어 보다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파리의 죽음을 대한 정약봉의 아래 조문(弔文)을 잘 읽고, 죽음에 대해 봅시다.

파리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 [吊蠅文]

파리야. 날아와서 이 음식 소반에 모여라. 수북이 담은 흰 쌀밥에 국도 간 맞춰 끓였고, 잘 익은 술과 단술에 밀가루로 만든 국수도 곁들여 놓았다. 너의 마른 목구멍과 너의 타는 창자를 축여라.

파리야. 날아와서 훌쩍훌쩍 울지만 말아라. 너의 부모와 처자식을 모두 거느리고 와서, 여한없이 한번 배불리 먹어 보아라. 너의 옛집을 보니 축대가 가득하고, 뜰은 무너졌구나. 벽과 문짝도 찌그러진데다, 밤에는 박쥐가 날고 낮에는 여우가 우는구나. 게다가 너의 목은 밧을 보니 가라지만 길게 자랐구나. 올해에는 비가 많이 내려 흙이 기름지건만, 마을엔 사람이 살지 않아 황폐해졌단다.

파리야. 날아와서 이 기름진 고깃덩이에 앉아라. 살진 소다리의 살집도 깊고, 초장에다 파까지 썰 놓았다. 농어회까지 갖추어 차렸으니, 너의 굶주린 창자를 채우고 얼굴을 활짝 펴라. 도마에도 남은 고기가 있으니, 너의 무리에게도 먹여라. (중략)

파리야. 날아서 환혼(還魂)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모르고 영원토록 혼혼해지니 너에게 축하한다. 죽은 뒤에도 재앙은 남아 형제에게 미치게 되니, 세금을 독촉하는 아전이 6월에 벌써 문을 두드리는구나. 그 호령이 사자의 울음 소리 같아서, 산악을 뒤흔드는구나. 가마와 술도 빼앗아 가

고, 송아지와 돼지도 끌어갔지. 그리고도 모자라서 관가로 끌어다가 불기를 치는데, 그 때를 맞고 돌아오면 기진하는 법이라, 염병에 걸려서 풀이 쓰러지듯 고기가 물크러지듯 죽어 간단다. 그렇지만 만백성의 원망을 천지 사방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고, 인민이 모두 사지에 놓여도 슬퍼할 수가 없구나. 어진이는 움츠러들었고 못 소인배가 날뛰니, 봉황은 입을 다물고 까마귀가 짊어대는 격이구나.

과리아. 날아가려거든 북쪽으로 날아가거라. 북쪽 천 리를 날아가 구중궁궐에 가서 너의 충정을 호소하고 깊은 슬픔을 전해라. 억지로 막지도 않고 시비도 없을 것이다. 해와 달이 밝게 비치어 그 빛을 날리니, 정사를 펴면서 인(仁)을 베풀고 신명에 고하면서 규(圭)-왕이나 제후가 조빙(朝聘)·제사 등의 의식에 예물로 쓰던 규벽(奎璧)-를 쓴단다. 천둥같이 울려서 천위(天威)를 감격시키면, 곡식도 잘 되어 풍년을 이룰 것이다.

과리아. 그때에 남쪽으로 날아 오거라.⁵⁰⁾

다산이 이 작품을 쓰기 1년 전인 기사년(1809)에 강진 지방에는 전에 없던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 무진년(1808) 겨울부터 이해 입추까지 가뭄으로 인해 적지천리(赤地千里)가 되었으며, 염병이 유행하고,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으며 살아있는 자들도 비참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참상을 고발·풍자한 시가 앞서 본 <승냥이와 이리>가 포함된 「전간기사」 6편이고, 같은 해 여름에 이를 다시 글로 표현해낸 것이 앞의 작품이다. 본문에 드러난 참상은 다산이 직접 보고들은 것이었지만, 유배 죄인의 몸이라 그것을 임금에게 보고할 수 없는 처지였고 또한 구제할 힘도 없어 글로 풀어낸 것이다.

작품의 앞부분은 창작 배경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학습지에 참고 자료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추해내도록 구성했다. 기근과 흑한, 염병 거기에 세금까지 가혹하게 징수당했고, 수많은 백성들의 시체가

50) 허경진 역, 『다산 정약용 산문집』, 한양출판, 1996, p.190 ~ 193.

길에 널려 부패하면서 파리로 변했다는 내용이다. 다산의 이러한 인식은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이자 더 중요한 것은 민중에 대한 사랑, 즉 애민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⁵¹⁾

1. <파리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을 읽고, 파리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 정지해 봅시다.

2. 정약봉은 어떤 배경에서 파리를 조문하는 글을 짓게 되었을까요?

3. 파리에게 말하는 내용과 그 말투로 미루어 파리에 대한 정약봉의 신정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 다음은 <파리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의 시작 부분입니다. 앞 문항에 대한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가경 경오년(1810) 여름에 파리가 매우 많아져 온 집안에 득실거리더니, 더욱 늘어나서 산골짜까지 만연하였다. 높은 다락이나 커다란 집에서도 얼어죽는 법이 없더니, 술집과 떡가게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웅웅거리는 소리가 천둥 같았다. 늙은이들은 괴변이라 탄식하고, 젊은이들은 성내며 때려잡았다. 어떤 사람은 통발을 만들어 놓아 걸려 죽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독약을 뿌려 그 약 기운에 어리게 해서 전멸시켰다.(이러한 현상을 보고)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아. 이 파리들을 죽이면 안 된다. 이들은 굶주려 죽은 자의 전신(轉身)이다. 기구하게 사는 목숨이다. 애처롭게도 지난해에 커다란 기근을 겪고, 또 겨울의 혹한까지 겪었다. 그래서 염병이 돌게 되었고, 게다가 세금까지 가혹하게 징수당했다. 수많은 시체가 길에 즐비하게 널렸고, 그 시체를 내다버린 것들이 언덕을 덮었다. 수의도 없고 관도 없는 시체에 훈훈한 바람이 불고 기운이 높아지자, 그 피부가 썩어 문드러졌다. 옛 고름과 새

51) 김상홍, 「다산의 <조승문>의 풍자 세계」 『다산문학의 재조명』,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3.

찌꺼기가 고여 엉겼다가, 그것이 변해 구더기가 되었다. 이 구더기들이 항하(恒河 : 갠지스강)의 모래보다도 만 갑절이나 많았는데, 날개를 가진 파리로 변해 인가를 날아드는 것이다.

아아. 이 파리가 어찌 우리와 같은 유(類)가 아니라. 너의 목숨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 음식을 만들고 널리 모이도록 청했으니, 서로 기별하고 모여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파리들을 이렇게 조문하였다.⁵²⁾

4. 이 글은 파리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그 내용은 당시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담은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읽으며 밑줄을 그어봅시다.

* 제시된 글은 작품의 일부분입니다. 작품을 찾아 전문을 읽으며 당시 사회 모습과 그것을 대하는 정약봉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도록 하세요.

<파리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의 제시된 부분을 읽은 후, 작품에서 다산이 조문한 ‘파리’가 백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당시 다산이 직접 보고 들은 바대로 굶어죽은 백성들이 많아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 형식을 빌어 표현했다는 점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학생들이 작품의 창작 배경과 다산의 애민의를 읽어냈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의 시작 부분을 제시하여 자신들이 생각한 내용과 비교해보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당시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해보며⁵³⁾, 제시된 작품을 다시 읽어 정리가 되도록 한다.

52) 허경진 역, 앞의 책, p.189~190.

53) 앞서 제시한 작품의 본문에 밑줄을 그어 답을 표시했으므로 반복하여 신지 않았다.

다산의 사회비판 의식 및 애민의식이 표현된 작품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학생들에게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다산은 당시 조선 후기 관리들의 횡포와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내었다. 유배 죄인의 몸이라 자신의 목소리를 글로 풀어낼 수밖에 없었지만, 비유 및 우화적 수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위한 마음 또한 표현했던 것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통해 이미 다산의 사회의식을 접한 학생들에게 앞서 제시된 본문과 학습지는 그의 사회적 상황과 그로 인한 의식들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지식인으로서의 다산의 생애와 사회비판 및 애민의식을 파악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실용의식의 표현

다산은 학교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실학자이기도 하다. 그의 실학사상은 성호학과(星湖學派)의 실학에 기반하면서, 그 학문적 폭과 창의성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는 자신의 학문체계를 경학(經學)과 경세론(經世論)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엄밀한 고증에 기반한 독자적 경전주석인 육경사서(六經四書)는 ‘자기 수양(修己)’를 위한 것이요, 사회개혁을 위한 경세론의 치밀한 주장인 일표이서(一表二書)- 『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⁵⁴⁾-는 ‘천하와 국가’를 위한 것(治人)으로서, 서로 근거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⁵⁵⁾

여기서는 다산의 실용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담긴 글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교육을 통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실학자 다산의 면모를 직접 살필 수 있게 할 것이다.⁵⁶⁾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와 『기예론(技藝論)』, 『전론(田論)』, 『목민심서』에 실린 글을 제시하여 그 속에 담긴 다산의 실용의식을 학생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① 진보적 경제관

54) 박영진, 앞의 논문, p.25 참조.

다산은 사회질서 구현을 위한 제도의 연구를 섬세하게 체계화하였다. 『경세유표』에서는 행정의 운용제도(運用制度)를 논하면서도, 법(法)의 본래정신이 예(禮)에 있으며 예란 보편적 법칙(天理)과 인간의 정감(人情)에 합당한 것이라 하여 법률(法律)의 공정성과 인간성을 강조하였다. 형률(刑律)을 다룬 『흙흙신서』에서는 옥사(獄事)를 결단하는 재판의 근본이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공홀히 여기는 마음에 있으며, 일을 엄숙히 다루되 인간을 사랑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수령(牧)이 백성(民)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이 수령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민본(民本)의 원리를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목민심서』의 원리이기도 하다.

55) 박영진, 「화성성역의 환경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1, p.22 참조.

56) 앞서와 달리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제외한 본 항목의 다른 글들은 다산의 문학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것은 작가론에 중점을 둔 본고의 연구 방향과 관계가 있다. 교과서에 실린 추상적인 내용의 ‘작가 소개’에서 매번 다산을 실학자로 접하긴 했지만 한번도 그의 실학자적 면모를 학생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없었고, 그의 유명한 저서들 역시 제목만 알 뿐 글을 살필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장려하고 기술을 습득하며, 신분을 따지지 않고 생업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다산의 생각이었다. 이것은 임금과 신하, 백성 모두를 위한 실용적 의식이었고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의식이었다. 여기서는 다산 자신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 즉 ‘백성’이 지녀야 할 그리고 실천해야 할 실용적 가치들이 담긴 글을 살펴보겠다.

* 정약룡이 아들에게 보낸 두 편지글을 읽고, 묵음에 대해 봅시다.

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 과일·채소·약초를 재배하도록

시골에 살면서 과수원(果樹園)이나 남새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지난번 국상(國喪)이 나 바쁜 가운데서도 만송(蔓松) 열 그루와 전나무 한두 그루를 심어 둔 적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집에 있었다면 뽕나무는 수백 그루, 접붙인 배 몇 그루, 옮겨 심은 능금나무 몇 그루 정도는 됐을 것이고, 닥나무는 지금쯤 이미 밭을 이루었을 것이다. 옷나무도 다른 밭 언덕으로 뺏어 나갔을 것이고, 석류도 여러 나무, 포도도 군데군데 줄을 타고 덩굴이 뻗어 있을 것이다. 파초도 네댓 개는 족히 가꾸었을 것이다. 불모지에는 버드나무도 대여섯 그루 심었을 거고, 유산(酉山)의 소나무도 이미 여러 자쯤 자랐을 거다. 너희는 이런 일을 하나라도 했는지 모르겠구나. 너희들이 국화를 심었다고 들었는데 국화 한 이랑은 가난한 선비의 몇 달 동안의 식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한낱 꽃구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생지황, 끼무릇, 천궁(川芎)과 같은 것이나 쪽이나 쪽두서니 등에도 모두 마음을 기울여 잘 가꾸어 보도록 하여라.

남새밭 가꾸는 데는 땅을 반반하게 고르고 이랑을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하며, 흙은 가늘게 부수고 깊게 갈아 분가루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씨는 항상 고르게 뿌려야 하며, 모종은 아주 성기게 해야 한다. 아욱 한 이

랑, 배추 한 이랑, 무 한 이랑씩 심어 두고 가지나 고추 등속도 마땅히 따로따로 구별하여 심어놓고 마늘이나 파 심는 일에도 힘쓸 것이다. 미나리도 심을 만한 채소다. 또, 한여름 농사로는 참외만 한 것도 없느니라.

절약하고 본농사에 힘쓰면서 부업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남새밭 가꾸는 일이다.⁵⁷⁾

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 학유(學游) 보아라 [寄游兒]

들으니 너는 닭을 기른다고. 양계는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닭을 기르는 것에도 우아하고 비속한 것, 맑고 탁한 것의 구별이 있다. 농서(農書)를 숙독하여 좋은 방법을 시험하되, 혹은 색깔별로 구분해보기도 하고 혹은 횡대를 다르게 해 보기도 하여 닭이 살지고 윤기가 흐르며 번식하는 것이 다른 집보다 낫게 하고, 또한 시로 닭의 정경을 그려내어 사물으로써 사물을 풀어 보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독서한 사람의 양계다. 만약 이익만 생각하고 의리는 생각지 않는다면, 기를 줄만 알지 운치는 몰라서 부지런히 골몰하여서 이웃 채마밭 노인과 밤낮 다투는 자라면, 이것은 서너집 모여 사는 시골의 못난 사내의 양계법이다. 너는 어떤 것을 하려는지 모르겠구나. 기왕 닭을 기른다면, 제자백가의 책에서 닭에 대한 학설들을 베껴 모으고 분류하여,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이나 유혜풍(柳惠風)의 『연경(煙經)』 처럼 『계경(鷄經)』으로 만든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일 것이다.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맑은 정취를 간직하는 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여라.⁵⁸⁾

* 다경(茶經) : 중국 당(唐)나라의 문인 육우가 지은 다도(茶道)의 고전.

57)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상)』, p.196~197.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과일·채소·약초를 재배 하도록’과 ‘근검(勤儉) 두 글자를 유산으로’의 두 편인데 본고에서는 실용적 의식이 담긴 전자만을 실었다.

58) 박무영, 앞의 책, p.184.

㉔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국어(상)」 교과서에 유일하게 수록된 다산의 작품이고,⁵⁹⁾ ㉕는 작은 아들 학유에게 보내는 편지다. 자신도 양반 신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리학에서는 전혀 중시하지 않는 덕목을 강조하며 실용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⁶⁰⁾

당시 양반은 농민들이 힘써 수확한 것을 먹을 줄만 알았지, 직접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얻으려 생각지 않았다. 그런 시대에 다산은 아들들에게 신분을 따지지 말고 언제나 부지런히 움직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경고하고, 양계를 시작한 학유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㉕는 유배된 지 4년만에 만아들 학연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뵈러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로, 양계를 하되 생업에 매몰되지 말고 양계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을 당부하여 생산에서 담당해야 할 ‘독서한 선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⁶¹⁾

1. 편지는 목적을 가지고 쓰는 글이라는 것을 중학교에서 배웠지. 그렇다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㉔, ㉕를 읽고, 정약봉이 편지를 쓴 목

교과서에 수록된 ㉔와 동일하기 위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구절을 덧붙였고, 박무영의 책에서는 ‘유(游)야 보아라’를 제목으로 쓰고 있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유 보아라’로 바꾸었다.

59) 교과서에서 이 작품은 ‘능동적인 의사 소통’ 단원에 실려있어 의사 소통 행위로서의 읽기와 쓰기의 특성 및 문학적 의사 소통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실학자 다산의 모습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실은 것이므로, 실제 학교수업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정해진 학습을 마친 후 다루거나 과제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60)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 p.242 참조.

61) 박무영, 앞의 책, p.190~191 참조.

적이 무엇인지 각각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2. 이 편지를 쓸 당시 정약용의 처지는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62)

3. 정약용은 아들에게 ㉠, ㉡에서와 같은 당부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또 그러한 당부를 한 전에서 그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는지 당해 봅시다.

4. 정약용이 편지를 통해 아들에게 하는 당부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일까요? 꼭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점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5. ㉠,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들의 입장을 상상하며 당장을 써봅시다. 63)

편지는 목적이 있는 글이므로, 다산의 글에서도 받는 대상인 두 아들을 향한 목적이 드러나 있다. ㉠에서는 남새밭을 가꾸어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양식들을 얻을 것을, ㉡에서는 양계에 힘쓰되 독서한 선비답게 양계법을 연구·개발할 것을 당부한 것이 바로 각각의 목적이다.

‘유배지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산은 당시 유배를 당한 몸이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자유의 몸이라면 아들을 옆에 끼고 하나씩 가르칠 수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 편지로나마 여러 일들을 당부하고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64)

62)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서는 ‘혼자하기’ 활동으로 당시 정약용이 처해 있던 상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63) 국어(상) 교과서 p. 201에 편지 ㉠에 대한 답장 쓰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64) 2번 문항의 답에 해당하는 내용은, 앞서 제시한 작품의 본문에 밑줄을 그어 답을

교사는 편지에 드러나 있는 내용의 파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학자 다산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의 실용 의식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학습을 하면서도 실제로 확인할 기회는 없었던 다산의 실학자적 면모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또 다산의 이러한 당부를 오늘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지금은 조선 시대도 아니고, 학생들이 농사를 지으며 공부하는 ‘가난한 선비’도 아니지만 다산의 생각을 통해 자신이 얻으려는 바를 직접 몸으로 행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는 교훈은 얻을 수 있다. 무엇이든 부모나 타인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요즘 학생들의 생활 태도를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두 편지를 받은 아들의 입장을 상상해보며 답장을 써보는 활동이다. 아버지 다산과 아들인 자신의 처지, 편지로나마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고있는 점, 편지의 형식 등을 고려하며 학생들이 각자 개성 있게 쓰도록 지도한다.

* 기술 습득에 대한 정약용의 생각이 담긴 아래 글을 잘 읽고, 묶음에 대해 봅시다.

기술을 배워야 한다 [技藝論]

하늘이 새나 짐승에게는 발톱을 주고 뿔을 주었으며, 단단한 발굽을 주고 날카로운 이를 주었으며, 독을 주었다. 그들이 저마다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람에게서 받게되는 환난을 방어하도록 해준 것이

표시했으므로 반복하여 실지 않았다.

다. 그런데 사람에게에는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마치 자기의 생활도 꾸려나갈 수 없을 것처럼 연약하게 만들었다.

어찌하여 하늘은 천하게 여길 데는 후하게 해주고, 귀하게 여길 데는 박하게 해주었을까. 사람에게에는 슬기로운 생각과 교묘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기예(技藝)를 습득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꾸려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슬기로운 생각을 펼쳐 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교묘한 생각으로써 사리를 연구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천 명이나 만 명이 함께 의논한 것을 당해낼 수 없고,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 아름다운 덕을 모두 갖추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 기예가 정교하게 되고, 세대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기예가 더욱 공교하게 된다. 이는 추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은 공작(工作)이 있는 현읍(縣邑)에 사는 사람만 못하고, 현읍에 사는 사람도 기교가 있는 이름난 성이나 커다란 도시에 사는 사람만은 못하다. 이름난 성이나 커다란 도시에 사는 사람도 새로운 양식의 신묘한 제도 [新式妙制] 가 있는 서울에서 사는 사람만은 못하다.

옛날 저 외진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한 번 갔다가, 시작만 해 놓고 아직 다 구비되지 않은 법제를 우연히 보았다. 그게 좋아 보여서 돌아와 시험해 보고는, 대번에 아는 체하고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천하에 이 법보다 나은 것은 없다.” 하였다. 자기 아들과 손자들에게 경계하기를 “서울에서 말하는 기예라는 것을 내가 모두 알았다. 이제부터는 서울에서 더 배울 것이 없다.” 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그 하는 일이 거칠고 조악하지 않은 게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백공(百工)의 기예는 모두 옛날 중국에서 배웠던 법들인데, 수백 년 동안 딱 짚라 꿇듯이 다시는 중국에 가서 배워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신식묘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다달이 많아져서, 이제는 수백 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서로 모르는 것을 묻지 않고, 오직 예전의 것만 만족하게 여기고 있다. 어찌 그리도 게으르단 말인가.⁶⁵⁾

다산은 나라의 부강(富強)과 소득 향상을 위해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새로운 기예와 지식을 중국에서 배워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에서 선진적 과학기술을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기술을 천시해 오던 종래의 유교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술이야말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발전요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곧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기술을 개발할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⁶⁶⁾ 그의 기술론은 천시만 하던 기예사상을 강조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은 실용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1. <기술을 배워야 한다>를 읽고, 정약용은 사람이 어떤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주장하는지 찾아봅시다.
2. 정약용은 당시 사회의 어떤 점을 문제화 지적하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3. 이 글에서 정약용이 주장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4. 당시가 조선 후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약용의 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65) 허경진 옮김, 앞의 책, p.164 ~ 167.

66) 엄광섭, 「한국의 장인제도와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8, p.114 ~ 115 참조.

김은성, 「실학사상의 디자인적 의미 분석」, 홍익대 석사논문, 1997, p.35 참조.

5. 지금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적어봅시다.

‘사람에게는 슬기로운 생각과 교묘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예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다산이 생각하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기예는 모두 옛날 중국에서 배웠던 것들이라 오래되어 낡은 것이 돼버렸고, 중국은 이후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겼는데 다시 가서 배울 생각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중국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오자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당시 조선은 유교적 이념 하에 기술을 천시하던 때이므로, 다산의 이런 주장은 사회적 관념을 벗어난 혁신적인 것이었고 그의 실학자적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차례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아울러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다산의 주장과 같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 각자 원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적어보도록 지도한다.

* 당시의 토지 소유에 대한 정약봉의 생각이 담긴 아래 두 편의 글을 읽고, 문음에 대해 봅시다.

㉠ 토지의 소유에 대하여 [田論] - 소득을 고르게 하는 사회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실 때에 먼저 논밭을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다.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임금을 세우고 목민관을 세워, 백성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다. 백성들의 재산도 고르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임금과 목민관들이 팔짱만 끼고서 여러 아들이 서로 싸우며 재산을 빼앗고 자기의 논밭에다 합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만 볼 뿐, 막지를 앓고 있다.

힘센 자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약한 자는 떠밀리어 땅에 넘어져 죽게 된다면, 그 임금과 목민관이 된 자를 훌륭한 임금이나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재산을 고르게 하여 다같이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은 참다운 임금이고 목민관이지만, 백성들의 재산을 고르게 하지 못하여 다같이 살 수 없게 한 사람은 임금과 목민관의 직무를 저버린 사람이다.(중략)

그러니 조정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애쓰고 끊임없이 힘써서 분자의 재산을 덜어내어 가난한 사람에게 보태어 줌으로써 백성들의 재산을 고르게 하는 일을 힘쓰지 않는 자는 임금과 목민관의 도리로써 자기 임금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㉔ 토지의 소유에 대하여 [田論] - 선비도 일하는 사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논밭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논밭을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을 받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곡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장(工匠)은 자기가 만든 기구를 가지고 곡식과 바꾸고, 장사꾼은 자기가 지닌 물건을 가지고 곡식과 바꾸게 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된다. (중략)

선비란 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 선비는 어찌하여 손밭을 한가하게 놀리면서 남의 땅에서 생산된 것을 삼켜 먹으며, 남이 힘써 일한 것을 얻어 먹는가?

놀고 먹는 선비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이익이 다 개발되지 않고 있다. 놀고서는 곡식을 나누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선비도 장차 직업을 바꾸어 농사를 지을 것이다. 선비가 직업을 바꾸어 농사를 지으면 땅에서 나는 이익도 개발되고, 선비가 직업을 바꾸어 농사를 지으면 풍속도 도타워질 것이다. 선비가 직업을 바꾸어 농사를 지으면 난민도 없어질 것이다.

선비 가운데는 반드시 직업을 바꾸어 농사를 짓지 못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장차 어찌될 것인가? 공장이나 장사꾼으로 변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아침에는 들판에 나가 밭을 갈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옛사람의 책을 읽는 자도 있을 것이다. 부자의 자세를 가르쳐서 살길을 찾는 자도 있을 것이다. 실리를 강구하여 토지에 알맞은 농작물을 분별하며, 수리를 일으키거나 기구를 제작하여 사람의 힘을 덜어주기도 하며, 원예 기술이나 목축업을 가르쳐서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들의 공을 어찌 육체로 일하는 자들의 능력과 견줄 수 있으랴. 하루의 일을 열흘로 기록하고 열흘의 일을 백일로 기록하여, 이에 따라 곡식을 나누어주어야 옳을 것이다. 선비에게 어찌 곡식을 나누어주지 않겠는가?

㉔와 ㉕는 다산의 <전론(田論)> 부분이다. 그가 활동한 18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엽은 정치·경제적으로 부패가 심각하여 백성들은 곤궁에 처해있었고,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농촌경제는 극도로 피폐하여 농민의 생활은 곤궁이 막심함으로써 당시 농업문제는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었다.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이 침체상태에 빠져 국가의 기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다산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당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그 중 제시된 ㉔, ㉕ 부분은 다산의 의식을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재산이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과 선비도 일을 해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그의 실용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1. <토지의 소유에 대하여> 두 편을 읽고, 정약봉의 주장이 잘 드러난 부분에 밑줄을 그어본 후 각각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2. 글에 나타난 정약봉의 주장을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과 비교해보고,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3. 1, 2번 문제를 바탕으로 정약봉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을 비추

어졌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4. 현재 우리 사회의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 글을 적는다고 가정하여, 정약용의 글과 같은 방식으로 부제를 붙여 봅시다. (_____ 사회)

두 편의 글에서 다산이 주장하는 내용은 각각의 제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⁶⁷⁾ ㉠, ㉡ 모두 노동력에 상응하여 토지와 소득을 배분한다는 ‘능력위주의 평등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선비들의 무위도식을 규탄하며 일하는 자만이 그 업적에 따라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는, 양반지주의 수탈과 봉건적 수탈체제에 반대하여 농민의 이익을 대변한 선진적인 사상이다.⁶⁸⁾

당시 유학자들의 견해와 상충하는 것이었기에 다산의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시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다산이라는 인물 자체도 유학자들에게는 두려운 혹은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의 주장이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그는 우상으로 추대되었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당시 사회적 이념과 백성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답하도록 유도한다.

소득의 불균형 현상이 빈번하게 거론되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적는다고 가정한다면, 다산의 방식대로 학생들 각자의 이상을 담아 부제를 붙여볼 수 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약자(弱者)를 배려하는 사회’ 등 자신이 바라는 사회의

67) 1번 문항의 답에 해당하는 내용은, 앞서 제시한 작품의 본문에 밑줄을 그어 답을 표시했으므로 반복하여 실지 않았다.

68) 최한규, 「다산 정약용 목민사상의 실학적 담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 논문, 2004, p.102 참조.

모습을 담은 부제를 정하도록 지도한다.

② 실천적 목민윤리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 다시 말해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守令)들의 행정 지침서로 쓰여진 책이 바로 『목민심서』였다. 고을에 부임하는 날부터 퇴임할 때까지 수령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는 『목민심서』에 수록된 글을 대상으로 하여, 목민관이 지녀야 할 실용의식 중 학생들이 오늘날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학습지를 구성하였다.

* 목민관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정약봉의 생각이 담긴 글을 읽고, 목
윤에 대해 봅시다.

㉠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안마(鞍馬)는 모두 옛 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비용을 절약하는 데 있고, 비용을 절약하는 근
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한 뒤에 청렴하고, 청렴한 뒤에 자애로울 것이
니, 검소야말로 목민하는 데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못 배우고 지식이 없어서 산뜻한 옷차림에 고운 갓을
쓰고, 좋은 안장에 날랜 말을 타고서는, 위풍을 떨치면서 세상에 자랑하
려고 한다. 그러나 노련한 아전이 새 수령의 태도를 살필 때는, 먼저 그
의 의복과 안마를 물으며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면 비웃으면서 ‘알 만하다’
하고, 만일 검소하고 허술하다면 놀라면서 ‘두려운 분이다’ 하는 줄은 모
르고 있다.

거리의 애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식자들이 비루하게 여기니,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남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한다. 자기 재산을 털어다가 자기 명예마저 손상시키고, 게다가 남의 미움까지 사게 되니 이 또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무릇 사치는 어리석은 자나 하는 일이다.⁶⁹⁾

* 안마(鞍馬) - 안장을 엮은 말.

㉔ 의복의 사치는 못사람이 꺼리는 바이고, 귀신이 질투하는 바이니 복을 더는 길이다.

도리를 아는 부인은 매우 적다. 대부분 모두 생각이 얕아서 남편이 수령이 되었다는 말만 들어도 곧 한 보따리 부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장식과 패물들을 가장 아름답게 하려고 힘쓰며, 저전(邸錢)을 함부로 가져오게 하여 방물장수들을 널리 불러 기이한 비단과 고운 모시베와 삼베, 용을 새긴 비녀와 나비 모양의 패물을 장만한다. 그리하여 아이들을 요물처럼 단장시키고 여종들을 기생처럼 만들어서 다른 집보다 뛰어난 모습으로 가는 길을 빛나게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식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 남편이 이미 바른 도리를 행하지 못함을 알게 된다. 재물을 낭비하고 복을 털면서 남편의 체면을 깎으니 무슨 상쾌할 것이 있겠는가.⁷⁰⁾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이 수령의 기본 덕목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훌륭한 인품을 지닌 수령의 청렴으로부터 합리적인 행정의 단서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견해이다. 그런데 청렴하기 위해서는 생활 자체가 검소해야 한다.

㉔는 「부임 6조(赴任六條)」⁷¹⁾ 중 제2조 ‘행장을 꾸림 [治裝]’에, ㉔는

69) 민족문화추진회 엮음, 『목민심서』, 솔, 1998, p.29~30.

70) 민족문화추진회 엮음, 앞의 책, p.290~291.

「율기 6조(律己六條)」⁷²⁾ 중 제3조 ‘집안을 다스림 [齊家]’에 각각 실려 있는데, 두 글 모두 재물을 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임 때 경비를 절약하는 것은 신관(新官)의 첫 숨씨이니, 수령으로서 청아(清雅)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여 백성들에게 믿음직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⁷³⁾ ㉠에 담긴 다산의 생각이다. ㉡는 자기 집안을 먼저 잘 다스린 자만이 고을의 정사(政事)를 바르게 돌볼 수 있다는⁷⁴⁾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자신을 바르게 가진 뒤에야 가능하다.⁷⁵⁾

1. 정약봉은 목민관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과 ㉡에서 각각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2. ㉠과 ㉡에 드러난 정약봉의 공통된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적어봅시다.
3. 정약봉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자신과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두 글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71) 송재소, 「목민심서의 현대적 가치」, 『비평』 2002 가을, 생각의나무, p.404.
수령으로 임명되어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임지로 가는 과정과 임지에서의 첫 정사를 보기까지 수령이 지켜야 할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72) 송재소, 앞의 글, p.404.

수령 개인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것으로, 집안 식구들의 행동거지와 손님 접대, 검소한 일상 생활 등의 강령이 기록되어 있다.

73) 염상열, 「다산의 목민사상과 공직윤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1, p.18 참조.

74) 정의단, 「한국 공직자윤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4, p.32 참조.

75) 염상열, 앞의 글, p.22.

“자기 몸을 바르게 가진 뒤라야 집안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집안을 바르게 한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통의(通義)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집안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한다.”

4. 조선 시대에 제시한 정약봉의 이러한 생각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사회 공직자들의 모습을 ㉠, ㉡의 내용과 비교하여 생각해 봅시다.

다산은 ㉠에서 수령이 고을에 부임해 갈 때 검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길이라 표현하고 있다. 또 ㉡에서는 수령의 부인이 사치를 하는 것은 재물을 낭비하고 남편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하여 수령의 집안 단속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수령이 된 자는 재물을 멀리해야 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산이 목민관의 태도로 청렴과 제가(齊家) 등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유도한다.

목민관이 된 자는 스스로를 엄격하게 대하여 검소하고 청렴해야 할 것과 가족 또한 바르게 단속해야 한다는 점을 다산은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조선 사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공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덕목이다. 자신과 가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다 결과적으로 이익은커녕 기존의 명성까지 잃어버린 공직자의 모습을 방송 매체를 통해 많이 보았으므로, 학생들이 이를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목민관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정약봉의 생각이 담긴 아래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대해 봅시다.

선달 그림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돌려야 한다.

남자로서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각각 쌀 1말과 고기 2근씩의 예물을 갖추어서 안부를 묻고-여자는 감등(減等)해도 무방하다-90세 이상된 노인에게는 귀한 반찬 2접시를 더 보탠다.

시험삼아 생각해본다면, 비록 큰 고을이라고 하더라도 80세 이상된 노인이 불과 수십 명일 것이요, 90세 이상된 노인은 불과 몇 사람일 것이니 쌀은 2섬에 불과하고 고기는 60근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찌 쓰기 어려운 재물이겠는가? 기생을 끼고 광대를 불러서 하룻밤 놀이에 거액을 가볍게 내던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리하여 선비들은 꾸짖고 백성들은 저주하여 그 방탕한 향락을 미워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재물을 없애면서 원망을 산다는 것이다. 감사가 이런 소문을 듣고 고을을 잘 다스린 공적(功績)으로 삼지 않을 것이며, 자손들이 이 일을 보고 그의 행장(行狀)에 기재하지 않을 것이니 천하에 낭비하고 헛되이 버리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어찌 그 반액을 떼어 양로의 예를 거행하는 데 옮겨 쓰는 것만 하랴. 옛날 영조 때에는 수령이 양로하는 것을 연례로 삼았는데 그 뒤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일을 전혀 듣지 못하겠으니, 다시 닦아서 시행해야지 그만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후략)⁷⁶⁾

* 행장(行狀) -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의 일생의 행적을 적은 글.

「애민 6조(愛民六條)」⁷⁷⁾ 중에서 제1조 ‘양로(養老)’에 수록된 글이다.⁷⁸⁾

76) 민족문화추진회 엮음, 앞의 책, p.138 ~ 139.

77) 송재소, 앞의 글, p.404.

고을의 노인, 어린이, 과부, 홀아비 등 외로운 사람과 상을 당한 사람들과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대책이 기록되어 있다.

78) 송재소, 앞의 글, p.407 참조.

「애민 6조」가 아니더라도 『목민심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다산의 애민의식이다. 모든 유학자들이 지향해야 할 절대적 명제였던 애민 사상이 그저 겉으로 표방하는 구호가 되어버린 당시 사회에서, 그는 껍질만 남은 애민 사상에 실체를 채우고자 한 것이다.

‘양로’는 경로사상(敬老思想)을 드높이고, 동시에 효(孝)를 실천하는 일이 된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으로서 노인을 대접하기를 이처럼 극진히 한다면, 고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음은 물론이고 윗사람에 대한 본보기가 되니 마땅히 수행해야 할 바이다. 또 나이가 들어 힘 없는 노인을 대접하는 것과 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은 백성의 부모라 할 수 있는 목민관의 당연한 도리라 하였다.⁷⁹⁾

1. 정약봉은 수령이 해야 할 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2. 노인들에게 음식을 돌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긴 행동인지 생각해 봅시다.
3. 정약봉은 어떤 이유에서 수령이 이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4.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접을 해야 마땅하며,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 글에서 다산은 고을의 수령인 자는 80세 이상의 노인과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각각 쌀과 고기, 귀한 반찬 등으로 안부를 물으며 대접해야 한다고 했다. 음식을 돌리는 행위에는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일 수도 있고, 특히 노인들에게 수령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보호와 대접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 당시는 지금보다 평균수명이 짧았으므로 그 나이의 노인은 한

79) 염상열, 앞의 글, p.29~31 참조.

고을에 매우 적은 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몇 안되는 사람에게 많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백성들에게는 훌륭한 수령으로 자리할 수 있다.

점차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요즘 노인들은 예전 같은 나이의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외부 활동도 많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노인을 사회 활동에서 제외된 약하고 소외된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며 세월을 보낸 이들이 노인이며, 지금 젊은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같은 입장이 될 것이다. 늘어만 가는 노인들을 모두 부양의 대상으로 보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오랜 경험자의 숙련된 손길이 필요한 각 분야에 이들의 노동을 활용하고 또 그에 맞는 대우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생들이 이와 유사한 생각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한다.

* 목련관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정약용의 생각이 담긴 아래 글을 읽고, 묵음에 대해 봅시다.

관직은 반드시 체임(遞任)이 있는 것이니, 갈려도 놀라지 않고 잃어도 미련을 갖지 않으면 백성들이 공경한다.

낮은 관직도 체임되거나 파면되는 일은 많으니, 관직을 믿을 수 있겠는가? 속담에 “관원 생활은 품팔이 생활이다.”하니 아침에 승진하였다가 저녁에 파면되어 믿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령으로서 천박한 자는 관청을 자기 집으로 인식하여 오래 누리려고 생각하다가, 하루아침에 상급 기관에서 격문(檄文)을 보내거나 통보가 있으면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큰 보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긴다. 처자는 서로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고 아전과 종은 결눈질

하여 보고서 비웃으니, 관직을 잃은 외에도 잃은 것이 또한 많다. 어찌 슬프지 않은가.

그러므로 예전의 어진 수령은 관아를 여관으로 여겨서 마치 이른 아침에 떠날 것처럼 하여, 그 장부를 정리하고 짐을 묶어두고 항상 가을 때가 가지에 앉아서 훌쩍 날아가려는 것 같이 하고, 한 점 미련도 마음에 머무름이 없다. 공문이 오면 바로 떠나고 전혀 미련이 없으니, 이것은 맑은 선비의 행실이다.⁸⁰⁾

* 체임(遞任) - 벼슬을 갈아 냄.

* 격문(檄文) - 급히 여러 사람에게 알리려고 여러 곳에 보내는 글.

「해관 6조」 중 제1조 ‘교대 [遞代]’에 실린 글이다. 일반적으로 수령의 임기가 끝나 퇴임할 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아 신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수령들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⁸¹⁾ 이 글 역시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청렴’을 호소하는 글이다. 그런데 청렴하기 위해서는 또 검소해야 한다고 했으니 결국 그가 생각한 목(牧)의 도리는 어느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이 글에서 정약룡이 강조하고 있는 수령의 요건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2. 밑줄 친 부분의 ‘관직 외에도 잃은’ 많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생각해 봅시다.

80) 민족문화추진회 엮음, 앞의 책.

81) 송재소, 앞의 글, p.411 참조.

3.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당시의 수경에 해당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관청을 자기 집으로 인식하여 오래 누리려고 생각’하거나 ‘얕은 선비의 행실’을 보여준 사람의 예를 각각 찾아봅시다.

4. 다음은 2004년 4월 17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사에 등장한 인물과 정약봉이 제시한 수경의 모습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서 표시해 봅시다.

‘딸각발이’ 조무제 대법관 법원 떠난다
‘청빈의 전형’ 후배들 귀감… “개업 생각 안 해”

‘꼴찌판사’, ‘딸각발이 판사’ 등으로 불리며 청렴 법관의 모델로 여겨졌던 조무제(趙武濟) 대법관이 다음달 17일 퇴임식을 갖고 34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난다.

‘꼴찌판사’라는 별명은 지난 93년 첫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공개대상 고위 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하면서 갖게 됐다. 당시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였던 조 대법관은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부인명의 예금 1075만원 등 6434만 원을 신고해 꼴찌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 대법관은 “집 한 채만 있으면 됐지”라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극구 사양하기도 했다. 98년 대법관 취임 때 재산 신고액 역시 7000만원에 불과해 이후 법원 내에서 청빈(淸貧)판사의 전형으로 꼽혀 왔다.

대법관이 된 뒤 서울 서초동에서 한때 보증금 2000만원짜리 원룸 오피스텔에 살았던 일화도 법원 내에서 유명하다. 특히 지난 94년 창원지법원장 시절부터 장관급 예우를 받는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10년간 배정된 비서실의 비서관도 마다하고 혼자 업무를 수행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에 대해 “그냥 불편해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청탁을 해도 안될 사람, 혹은 친구인 변호사들도 그의 판사실 문턱을 넘기 힘들 사람으로 통한다.

조 대법관은 관례로 여겨지던 전별금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94년 창원지법원장으로 승진할 때도 직원들이 모아 건넨 전별금 500만 원을 익명으로 부산고법 도서실에 기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수당을 털어 직원에게 소주값을 대주는 인정 많은 법관이기도 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한 후배판사는 “자신에게는 엄하면서도 후배 판사들에게는 넓은 마음을 가진 법관” 이라고 평했다.

진주사범학교와 동아대 법경대학을 졸업한 조 대법관은 64년 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70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마산지원, 대구고법 판사, 진주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부산지법원장을 거치면서 30여년 가까이 부산지역에서만 판사생활을 해온 지역법관 출신이다. (후략)

* ‘다산연구소’ 홈페이지의 ‘푹어쓰는 다산이야기’에 오늘 착습한 내용과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2005년 5월 16일에 입격된 ‘고관들의 아름다운 퇴장’을 찾아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글에서 다산이 강조하는 수령의 덕목은 세 번째 문단에서 드러난다. 관직에 있는 자는 그 자리에 오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언제나 떠날 듯이 하고, 실제로 떠날 때에는 미련이 없어야 한다. 한마디로 ‘관직에 연연(戀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이는 상부의 파면 통보에 당황하고 괴로워하는데, 관직을 잃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民心)을 잃었다는 데 있다.⁸²⁾ 오래오래 관청에 머무를 수 있을 줄로만 알았다면, 그동안 살림은 늘어나고 직무에는 나태했을 것이며 고을 사람들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파면 통보에는 ‘보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쉬워하니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공직자들의 모습에도 이 글을 비추어볼 수 있다. 각종 뇌물과 청탁으로 자리를 보전(保全)하려 하고, 비리가 발각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는 일이 허다하다. 반면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여 박

82) 1번 문항의 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밑줄은 앞서 제시한 작품의 본문에 그어 답을 표시했으므로 반복하여 신지 않았다.

수를 받으며 퇴장하는 이들의 모습은 자주 볼 수가 없다. 학생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접했던 이야기를 떠올려 이야기하도록 이끌고,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내기 힘든 경우 과제로 부여하여 직접 찾도록 지도한다.

마지막 문항에서 제시한 신문 기사는 ‘아름다운 퇴장’을 보여준 인물에 대한 것으로, 다산이 강조한 청렴과 관직에 연연하지 않은 태도가 잘 드러난다. 체임이나 통보가 아닌 정년퇴임이라는 점은 차이가 있지만, 임기 동안의 모습과 물러날 때의 모습 모두 다산의 글과 잘 어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³⁾

다산의 실학 저서와 실용의식이 담긴 문학은 학교교육에서는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목민심서』의 경우 다산이 등장할 때마다 공식처럼 연결시켜 소개하지만, 정작 그 속에 담긴 글은 한번도 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다산의 실용의식이 담긴 글들은, 그동안 ‘정약용=실학자’라는 식으로 암기했던 사실을 학생들이 직접 읽어보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산의 실학자적인 면모를 스스로 발견함으로써 학생들은 백성과 나라를 위한 개혁적인 그의 사상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다산의 생애 교육 방안을 먼저 살펴본 후 개인 생활 모습, 사회 지식인으로서의 의식, 백성과 국가를 위한 실학자로서의 의식이 드러난 작품들의 작가론적 교육 방안을 차례로 제시해 보았다. 다산의 문학 작품을 접하기 전 예비학습 형태인 생애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과 책 등

83) 4번 문항의 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밑줄은 앞서 제시한 작품의 본문에 그어 답을 표시했으므로 반복하여 신지 않았다.

을 찾아보며 활동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여기서 형성된 다산에 대한 배경지식이 문학 작품을 보며 구체화되고, 나아가 이를 현대 사회와 자신의 삶에 비추어보는 내면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IV. 결론

문학 교육은 문학 작품을 통해 배경이 되는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사고력이 신장되며, 정서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전문학의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문화적 배경과 작가를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전문학 교육은 작품이 창작된 배경 즉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및 작가의 생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 입각하여 다산 정약용의 문학을 작가론적 관점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산은 과도기 현상으로 인한 많은 사회 문제들을 드러내었던 조선 후기에 굴곡을 겪으면서, 자신의 사회적·개인적 체험과 의식을 고스란히 문학에 담아낸 작가이다. 널리 알려진대로 많은 양의 저서를 남긴 실학자일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다양한 갈래에 걸쳐 개성 있는 모습을 남겼으므로 작가론적 교육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교과서에서 다산의 문학을 접하게 되는 것은 고등학생이므로 작가론적인 문학 교육을 소화해낼 능력이 있다.

현재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다산의 작품은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것까지 모두 포함해 5편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업 중에 또는 수업 전·후의 과제로 다산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연결지어 학습하도록 교사가 이끌어준다면 다산 문학의 작가론적 교육은 물론 앞서 언급한 문학 교육의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물 중에서 고전문학에 대한 작가론적 교육 방안에 대한 것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론에서 연구사 부분을 신지 않고 연구목적과 방법만을 밝혔다.

다음 II장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는 작가론적 교육의 필요성과 다산 문학을 교육하는 것의 가치 및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는 다산에 대한 소개와 수록 작품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방향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III장에서는 다산의 생애 교육 방안과 문학 교육 방안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생애 교육 방안은 학생들이 작품을 접하기 전, 예비학습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다산의 생애는 유년 시절부터 관료로 지내던 시절, 유배기, 해배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학습지의 각 시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후에는 생애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또 다산이 처한 상황에 따라 문학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제시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별학습지’도 구성해 보았다.

‘2. 문학 교육 방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작가론적 교육 방안이지만 문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로 나누었고, 이는 다산의 생애 흐름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개인 생활의 문학적 표현’에서는 어린 시절의 모습과 20~30대 젊은 관료로서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담긴 작품들을 주로 제시하였다. 어머니를 일찍 여윈 자신을 보살펴준 큰 형수를 위한 묘지명과 ‘죽란시사(竹欄詩社)’를 위주로 한 우정과 풍류의 세계가 담긴 시와 기 등을 이용하여 학습지를 구성하였다. 또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아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남편으로서의 모습, 자신이 유배된 탓에 떨어져 지내는 자식들의 교육을 염려하는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확인하였다.

‘사회적 의식의 문학적 표현’에서는 개인이 아닌 사회로 범위를 넓혀, 조선 후기의 지식인으로서 다산이 가지고 있던 사회비판 의식와 애민 의식이 표현

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유배지에서 쓰여진 것들로, 이는 다산이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당시 사회의 부패상과 그로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실학의식의 표현’은 유배기에 시작하여 해배 이후에도 계속된 다산의 저술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와 같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부터 <목민심서(牧民心書)>와 같은 이름난 저서에 이르기까지 실학자 다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다산의 실용의식을 직접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실제 수업 시간이나 과제 부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다산 문학의 작가론적 교육 방안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의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과정상 충분한 수업 시수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교사의 준비와 노력도 상당히 요구된다. 따라서 다산의 경우 교사가 작품 수업에 임하기 전, 수업 시간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재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과 연구물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고전문학에 대한 작가론적 교육 방안이 본고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교과서 및 전집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 2002.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상)』, (주)두산, 2002.
- 김병국외, 『고등학교 문학(상)』, 케이스, 2002.
- 우한용외, 『고등학교 문학(상)』, (주)두산, 2002.
- 정약용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다산시문집』, 1994.
- 정약용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목민심서』, 솔, 1998.
- 정약용 저, 이익성 역, 『경세유표』, 한길사, 1997.
- 조남현외,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 조남현외, 『고등학교 문학(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2. 단행본

- 강희명의 저, 손광성의 편역, 『아름다운 우리 고전 수필』, 을유문화사, 2003.
- 김갑기·이종찬, 『조선후기 한시작가론』, 이회문화사, 1998.
- 김상홍, 『다산 문학의 재조명』,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3.
- 김상홍, 「다산의 <조승문>의 풍자 세계」, 『다산문학의 재조명』,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3.

- 김상홍, 『다산 정약용 문학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5.
- 박경신외, 『꽃보다 아름다운 문학』, 금성, 2003.
- 박무영, 『뜨든 세상의 아름다움』, 태학사, 2001.
- 박무영, 『정약용의 시와 사유방식』, 태학사, 2002.
- 송재소, 「다산 정약용론」, 『조선후기한시작가론』, 이회문화사, 1998.
- 심경호, 『한국 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 우한용, 「문학교육에서 문화와 상상력」,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상익,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 장승구, 『정약용과 실천의 철학』, 서광사, 2001.
- 정약용 저, 김지용 역주, 『정다산 시문선』, 교문사, 1991.
- 정약용 저, 송재소 역주, 『다산시선』, 창작과 비평사, 1981.
- 정약용 저, 허경진 역, 『다산 정약용 산문집』, 한양출판, 1994.
- 허왕욱, 『고전문학교육론』, 보고사, 2003.

3. 학위논문 및 소논문

- 김용직, 「다산 정약용의 문학과 문학관 : 그 이론과 실제」, 『다산실학사상 논문선집』, 불함문화사, 1994.
- 강재연, 「활동 중심 문학교육을 위한 수행평가 방법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권용덕, 「고전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 : 현행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구홍모, 「다산의 유배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동윤, 「중학교 문학교육 방법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교과서를

-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상홍, 「다산 문학의 현대적 조명」, 『다산학보』, 1995.
- 김상홍, 「정약용의 시세계」, 『현대문학』, 1993.
- 김은성, 「실학사상의 디자인적 의미 분석」,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종필, 「다산 정약용의 서정시 연구」,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노금선, 「다산 정약용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대일, 「고전시가 학습 지도방안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명란, 「다산 정약용의 ‘논’ 고찰」, 수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영진, 「화성성역의 환경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박철완, 「다산 기문학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철완, 「다산 기의 특징과 주제의식 고찰」, 『청람어문학』, 1997.
- 송재소, 「목민심서의 현대적 가치」, 『비평』, 2002, 생각의나무.
- 송재소, 「정약용의 사상과 문학」, 『사상』, 사회과학원, 1992.
- 서종문, 「고전문학 교육의 과제와 전망」,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2001.
- 엄광섭, 「한국의 장인제도와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염상열, 「다산의 목민사상과 공직윤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수영,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과 교과서 : 문학교과서 분석을 통해」, 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경희,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의단, 「한국 공직자윤리에 관한 연구 : 『목민심서』의 율기 조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찬용, 「다산 정약용의 한시 연구 : 조선시를 중심으로」,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병정, 「다산 정약용의 서정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한규, 「다산 정약용 목민사상의 실학적 담론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최화순, 「현행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등학교 국어(상)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허수준, 「다산 정약용의 우언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ABSTRACT

A Study on a Methodology of Teaching Jeong Yak-yong's Literary Works Based on His Philosophy as a Writer

Park Yang-ho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7th Phase of Education advocates the 'learners-centered education.' Therefore, all Korean classes, including literature, should be centered on learners. The literature education, however, has focused on the knowledge transfer, not on the appreciation of learners. Especially in classical literature classes, memorizing the text and formal elements has been regarded as important. As a result, almost all of learners could not have an interest in classical literature.

To make learners have an interest in classical literature,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understand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times and writers. Understanding the living, ideas, social background of a writer makes it easier to identify the message and subject of the writers' literary work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method of teaching Jeong Yak-yong with the pen name of Dasan focusing on his philosophy displayed in his a variety of literary works. He is thought to be someone to be thought in classical literature because his various types of literary works, including poem, letter, epitaph, and description, show a number of aspects of our ancestors' living

from as a member of a family to as an intellectual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o had the compassion for the people at that times and expressed his thoughts of realism.

The personal history of Jeong Yak-yong and the social background were reviewed, and then some his literary works showing well his personal life as a member of the family, his friends, social criticism, compassion for the people, and philosophy as a realistic scholar. A material for a classical literature class was developed so that the class could be centered on learners. The items in the material were constructed to make learners understand the social background at the times described in the writer's literary works and moreover compare it with that at this moment.

These activities could be used in the class about the literary works of Jeong Yak-yong or for a performance evaluation, depending on the discretion of a teacher.

To make learners and teachers be interested in a classical literature class, it is required to develop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y which allows learn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lass. Understanding and being more familiar with the life of a writer would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the writer's literary works. More studies on an educational methodology practically usable in a literature class should be carried out.